대전투데이

의료광고심의 190802-중-97491
보문산 생태요양병원
042) 222-5567
암 재활
암 면역
영양식단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418호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예산에 반영해야"

충청권공대위 성명서 발표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 · 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가칭)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시민추진단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거리 현수막을 세종시에 집중하여 선도적으로 게첩했다고 밝혔다.

충청권공대위는 11일 성명서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골든타임라고 보고, 법적 토대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이전 규모와 입지 등 건립계획 수립,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계비 127억 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지난해와 올해 정부예산에 각각 10억 원씩 이미 반영된 20억 원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검토 결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는 1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울과 세종의 정치 ·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016년부터 3년간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 횟수가 87만회에 이르며, 관외 출장으로 지출한 비용이 917억 원에 달하고 있다. 행정의 비효율과 혈세낭비,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권공대위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의 대선과 총선의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우선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당이 제안을 한 형국이니, 결정적 키워드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국민의힘의 충청권 핵심공약이고,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미사여구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능력이 필요하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청권공대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발점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되기를 바라며,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와 함께 충청권 민관정의 하나된 마음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을 국회에서 화답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양승조 지사 "환황해 중심 향한 충남의 담대한 도전 시작됐다"

혁신도시 지정 충남 비전 선포

충남 혁신도시 유치 성공을 자축하고, 지역 및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다짐하는 220만 도민의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환황해권의 중심을 향한 충청남도의 담대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선언하며, 혁신도시를 발판으로 한 충남의 미래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도는 12일 저녁 도청 남문광장에서 양 지사와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지정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20만 도민이 힘을 모아 일궈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함께 축하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견인과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경과보고와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축하 메시지, 양 지사의 충남비전 선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앞장선 홍문표 · 강훈식 국회의원, 유병국 도의회 의원, 전영한 충남발전위원회 명예회장,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황명선 시장군수협의회장, 나소열 전 충남혁신도시유치TF단장, 신안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전 회장, 이경호 의용소방대 도연합회 전 회장 등 18명이 도지사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양 지사는 충남비전 선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은 220만 도민의 염원이자 충남도정의 제1핵심과제였다"며 "이것을 우리 충남도민이 해낸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더 크게, 더 높게, 더 멀리 나아갈 충청남도의 힘찬 도약은 충남 혁신도시로부터 출발한다"며 "그리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혁신도시를 중심축으로 삼아 도내 5대 권역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서산 · 당진 · 아산 · 천안은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로 ▲서천 · 보령 · 태안은 해양자원 활용 신산업벨트로 ▲홍성 · 예산은 수소산업 국가혁신클러스터로 ▲공주 · 부여 · 청양은 K-바이오 소재 산업벨트로 ▲논산 · 계룡 · 금산은 국방지원체계 · 지역자원 활용형 신산업벨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충남형 뉴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와 수소도시 및 스마트 그린시티를 조성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15개 시 · 군이 저마다의 색깔로 성장하고, 서로가 상생 발전하는 가운데, 도 전체가 조화와 균형 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충남의 미래를 가꿔 나아가겠다"는 목표로, "충남 혁신도시가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이라는게 양 지사의 판단이다.

양 지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서해안 KTX 도입, 서산 군비행장 민항 건설 등 국가 발전을 이끌 인프라를 더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 혁신도시 강소도시권, 천안 · 아산 스마트도시권, 국가 행정도시권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해 국가 중심축으로서의 발판을 확실히 다져내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한 · 중 · 일 3국을 중심으로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해 역사적 · 문화적 전통을 공유한 환황해 지역이 이제 경제적 번영은 물론 세계 평화와 화합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전 선포식은 코로나19에 따라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현장 행사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문 소독기 설치, 입장 인원 제한 및 입장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김정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대전상의, 부처 이전 문제로 지역갈등 조장해선 안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단(회장 정성욱, 부회장 유재욱 · 정상희 · 성열구 · 정태희 · 이승찬)이 12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상의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 완화를 통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중기부를 또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지역간 갈등만 심화시켜 민심이반을 초래할 뿐"이라고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중기부에서는 부처간 협업과 업무 효율성 저하, 사무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세종시 이전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전청사 부지 내 증축을 통해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기부의 논리라면 국세청 · 검찰청 · 경찰청 · 소방청 · 방위사업청 등 대전정부청사에 입주하지 않은 '청' 단위의 모든 외청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 대전청사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느냐"며 반문을 제기했다.

또한,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갖춘 벤처기업 최대 집적지이며,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해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으로 이끌 최적지"라고 당위성을 덧붙였다.

송병배 기자

"충남연구원, 정책사업 각종 센터 난립…연구기능 부실 우려?"

충남도의회 오인철,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

충남도의회 오인철(기획경제위원회 · 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연구원 각종 센터 난립은 연구원의 연구실적 부실과 함께 행정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충남연구원 부설센터는 2020년 9월 기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력정원 39명, 예산액 약 94억원으로 연구원 전체인력 정원의 29%,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설센터 예산은 연구원과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인력정원도 연구원과 별도로 운영되는 한지붕 두가족 형태이다.

오 의원은 "경영평가와 행정감사 등 기관평가에서의 사업실적은 충남도청 소관부서로 돌아가고 관리책임은 충남연구소로 귀착되고 있어 연구원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정산과정에서 센터직원의 고용승계가 문제됐는데, 그 책임이 고스란히 충남연구원에게 전가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도시외교연구센터, 경기연구원의 북부연구센터, 전북연구원의 새마금연구센터 등은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려 극히 제한적인 센터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충남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난립된 각종 센터를 정리하고, 연구소 본연의 업무와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와 시군의 중장기 개발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 · 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각종 정책을 개발 · 제시함으로써 충남도와 시군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 지역의 독자적, 전문적 연구 및 정책 발굴 기능과 도, 시군 중장기, 현안 등 다양한 정책기능 창출과 중앙정부 공동 대응 등 지방행정의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 체계적인 발전 방안 제시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김정환기자

홍문표 의원, 예산 · 홍성군 시 승격 본격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사진> 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 · 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홍문표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 · 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하여 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경청하고 돌아갔다.

홍문표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되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정환기자

어기구 의원,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위촉

"반칙과 특권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선원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팀장으로 위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노동사회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발대식을 가졌으며, 이날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은 윤후덕 단장을 필두로 공공부문, 금융 부문 등 5개 핵심부문의 간사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중소제조업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선원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9대 과제 팀으로 구성됐다. 실천단은 앞으로 노동자 권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동 관련 입법활동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선원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라는 책임과제의 팀장으로 임명된 어기구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어기구 의원은 소감을 통해 "선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반칙과 특권 없이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문진석 의원, 자영업자 월세 부담 완화 추진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 사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4천만 원 이하 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에게도 월세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한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트램건설 도시정비 · 재생사업과 연계된 통합적 점검 필요"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 "도시정비 · 재생사업, 트램계획과 미스매칭…교통대란 우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은 12일 2호선 트램 건설이 주택재개발 · 재건축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교통대란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도시재생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10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교통대책이나 도로계획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각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어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단위별 사업을 모두 합쳐 놓으면 심각한 교통혼잡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특히 트램노선 중 동구 가양동 · 자양동 지역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 상황인데도 재개발지구가 집중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대전시에서 진행되는 10곳의 도시재생사업 중에 7곳이 트램노선과 인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트램도입을 상정한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주체가 대부분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트램계획을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같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은 "대전의 도시미래를 결정짓는 트램건설과 개발사업 · 재생사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진행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장철민 의원,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전기차 불만! 정부와 국회에 말한다>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전기차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기차 불만! 정부와 국회에 말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전기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관계 부처의 답변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전기차 관련 정책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장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전기차 관련 설문조사는 답변 인원이 1,2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 역시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하고 온라인을 통해 질문을 받는 등 새로운 소통 시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에는 최웅철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였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주무 부처의 담당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만에 대해 답변하였다.

발제를 맡은 장철민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를 양적으로만 따져보면 이미 주유소보다 많은데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이 불편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충전 인프라 구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재로의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제부터는 실사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시간은 전기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장철민 의원은 "지금의 충전 사업은 민간 이양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본다."며,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민간 기업이 진행한다면 단순히 과금에 의존한 모델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및 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서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현안보고 가져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앞두고 개최… 의원 정책간담회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달 25일 개최되는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집행부 사전설명 안건 23건, 현안보고 사항 13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사전 확인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보건행정과)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일자리경제과)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관합동개발(안)(기업지원과)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문화예술과) ▲서산형 주민자치 체계 구축 계획(시민공동체과) 등을 사전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이연희 의장은 "힘차게 시작했던 2020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다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은 심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중구의회, 제231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 교육

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는 11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31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틀간의 의원역량강화 교육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오늘 교육은 법제처 법제자문관과 대전 중구의회에서 입법고문을 맡고 있는 최민수 교수를 초청해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가득이심리상담센터 대표 박경은 박사의 '소통과 리더십' 강연이 이어졌다.

김연수 의장은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20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간이었다."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정례회 의사일정을 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 공공기관 유치관련 작심발언

한국문화재재단 외 8개기관 유치해야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소멸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공주시에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당시 전체 면적의 8.2%인 76.1㎢와 3개면 21개리, 6,000명을 넘겼으며 편입된 부동산 가액만 1조 8,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남양유업을 비롯해 한국영상대학, 농협연수원, 산림박물관, 32사단 등의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편입해 12만이던 인구는 현재 10만명을 갓 넘고 있는 수준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에 개최된 제222회 임시회에서 공주시가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을 공주시에 최우선으로 이전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혁신 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를 전제로 한 공공기관 이전은 내포신도시로 와야 한다고 말하고, 역사·문화 관련 기관은 공주시 이전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공주시에 역사·문화 관련 기관으로 이전 기관을 한정 지으면 안 된다"며,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내포신도시보다는 세종시에 인접한 공주시에 분산 유치하는 것이 정부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체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양 도지사께서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충남의 손실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제는 충남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공주를 배제하고 내포신도시로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공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힘주어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해 긴밀히 소통"

바이든 당선인 "한국,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 핵심축"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이뤄진 첫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오늘 미국 재향군인의 날에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최근에는 직접 우리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측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공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안보, 세계경제 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 온 데 대해 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한국과 같이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 길이 열리고 있으며, 지금부터 신행정부 출범 시까지 코로나 억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이정복 기자

직 · 공장새마을운동충청남도협의회

2020 직장새마을운동 워크숍

직 · 공장새마을운동충청남도협의회는 12일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생명사랑 · 환경살림 직장문화 가꾸기 「2020 직장새마을운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임동규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시 · 군 직공장새마을회장단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공장새마을운동 활성화 워크숍에서는 ▲ 직공장새마을운동에 기여해온 8명의 직장지도자들에 대한 시상 ▲ '건강한 소통과 행복한 관계'란 주제로 신정민 코칭심리 전문가의 특강 ▲ 생명살림운동 교육 ▲ 박미혜 · 신민주 강사의 친환경 교육과 제품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이경용 직공장 회장은 인사말에서 "단합된 역량을 모아 직장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충남의 직장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직장새마을운동 사업으로는 직장지도자 각자의 재능을 살려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전개, 직장내 그룹별 봉사활동 동아리 육성, 에너지절약 캠페인등을 통한 생명살림운동과 환경살림 직장문화가꾸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송병배 기자

당진시 경기 불황 속 '대규모 투자유치'로 주목

충남도-당진시-와이케이스틸(주)&지산 그룹 투자협약식 가져

당진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 축소, 소비침체 등 경제가 위축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11월 12일 11시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장승호 와이케이스틸(주) 상무이사(대리참석)가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와이케이스틸은 부산에서 운영하던 철근 및 Billet공장을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해 약 15만 7296㎡부지에 1933억 원을 규모로 제강 및 압연공장을 건립하고 2023년부터 공장을 가동해 300명의 신규채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산그룹은 송악읍 부곡리 483-2번지 일원에 1300억 원을 투자해 6만 6804㎡ 규모의 물류터미널을 신축하고 2022년도부터 45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당진시도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 · 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기업도 지역인력 우선채용, 관내 생산품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번 협약에 앞서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금년 9월부터 베바스토사와 약 1300억, KG동부제철과 1550억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잇달아 성공시키고있다.

당진=최근수 기자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 용지 분양일정 돌입

13일 분양공고, 친환경 금형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추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서 조성중인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시설용지가 13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들어간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분양대상은 전체 산업시설용지 93필지 중 신탄진동 일원 79필지(공급면적 8만 1,229㎡)며, 입주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경쟁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구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 개정기준)상 중분류 CODE 25, 29, 35번에 해당하는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은 입주제한)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발전업(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건물옥상 등 활용 발전업) 등이다.

분양공고는 대전시 및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분양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온비드에서 신청접수 후 낙찰자는 내달 4일까지 대전도시공사(분양팀)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공급용지 총 감정평가액은 613억 4,400만 원, 3.3㎡당 평균 250만 9,000원 선으로 대금 납부 방법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6회(무이자) 기준으로 계약금과 중도금(5회) 및 잔금으로 분할 납부 가능하다.

한편,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 평촌동 일원 20만 1,000㎡에 899억 원을 투자, 친환경 금형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생산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 · 소형 규모의 실수요자 맞춤형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친환경 금형산업 집적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강도태 복지차관 "일상공간서 산발적 집단감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

"확진 100명 이상, 1주 중 4일…언제든 급격 증가할 수 있어"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최근 1주일 중 국내 확진환자 수가 100명을 넘는 날이 4일이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직장과 학교,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면 확진자 수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긴장감 유지와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오는 14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300일을 언급하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대중교통,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요양시설, 철도역 등 공공장소에 유 · 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국민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역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립공원과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방역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와 높은 시민의식이 가장 훌륭한 백신"이라고 강조하며 내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하기를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aT, 금산군과 금산인삼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뉴욕 · 홍콩 등지에서 유튜브 · 아마존 · 유력일간지 지면 광고

비대면 화상상담 진행(1) 비대면 화상상담 진행(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달룡)는 금산군(군수 문정우)과 11월부터 연말까지 인삼 제품에 대해 뉴욕, 홍콩에서 일간지 광고, 유튜브 홍보, 아마존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aT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현지에서의 오프라인 프로모션이 어려워지면서 현지 바이어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을 추진하게 됐다.

홍콩 및 뉴욕 등지에서 유료일간지 지면 광고, 아마존 온라인 전자 상거래 몰 프로모션, 유명 인플루언서 연계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구글 트랜드 등을 활용해 프로모션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 조사를 통한 판매 전략 재수립 등 다양한 마케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한 파급력 있는 SNS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확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농축산식품 수출실적은 약 55억 불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고, 충남도 인삼 수출실적 또한 약 9천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했다. 특히 인삼은 면역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도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aT대전세종충남본부 한기수 팀장은 "aT는 충남지역의 인삼, 배, 김, 딸기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인삼의 주산지 금산군의 수출 공동브랜드인 '금홍'을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병배 기자

충남도, '2020 단풍나무 숲길 판매전' 개최

충남도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길에서 '2020 단풍나무 숲길 판매전'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0 코리아 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판매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전국 최대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인 동시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이브 방송), 온라인 쇼핑몰 등 소비자 소통 중심의 판매전으로 운영된다.

실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판매 부스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장치를 설치,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 양방향 소통으로 충남 우수한 제품을 판매한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전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한 달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 전 상품에 10% 일괄 할인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에 충남 우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단풍나무 숲길 힐링 판매전 제품은 온라인을 (http://cepamall.kr/)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동 정●●●

김장나누기 행사

황인호 동구청장= 13일 오후 2시 우송대학교에서 우송대학교와 함께하는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

구청장협의회

박용갑 중구청장= 13일 오전 11시 울산 중구청에서 열리는 '제32차 전국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참석.

사랑가득 김장나눔 행사

장종태 서구청장= 13일 오전 10시 30분 서구청 광장과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는 2020년 행복동행 사랑가득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

새마을회관 개관 기념식 행사

정용래 유성구청장= 13일 오후 3시 온천서로 38에서 진행되는 유성구새마을회관 개관 기념식 행사에 참석.

마스크 미착용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의무화 장소에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착용해야… 市, 자발적 방역 동참 유도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대전시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시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란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1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감염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이 해당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하며,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며, 시설 관리·운영자 또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경우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또한,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대해 500여명 171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설별 방역수칙 및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방역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현재로써는 개인의 생명과 나아가 가족, 지역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쉽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며, 타인의 간섭이 아닌 서로를 위한 관심으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위텍코퍼레이션(주) 차량 기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2500만원 상당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황사마스크 제조 및 판매 기업인 위텍코퍼레이션(주)은 1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2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기탁했다.

이번 차량 지원금은 공익연계 마케팅을 통한 위텍코퍼레이션 제품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는 기탁받은 차량을 통해 아동 상담, 후원자 개발을 위한 방문 등 관련 업무에 힘쓸 예정이다.

위텍코퍼레이션(주) 이신재 대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움직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미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은 "편안하고 빠르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달릴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주신 위텍코퍼레이션에 감사드린다. 응원에 힘입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유성구, 자율주행로봇 전문업체 트위니와 업무협약 체결

4차 산업혁명 핵심인 AI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주식회사 트위니와 '자율주행로봇 테스트베드 조성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과학도시 유성의 이점을 활용, AI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천영석 트위니 공동대표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유성구와 트위니는 ▲자율주행로봇 테스트베드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진로교육 및 과학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사항 ▲각종 공모사업 공동 참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AI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제공, AI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등 대덕특구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구정 각 분야에 AI를 확산하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트위니(TWINNY)는 실내 자율주행로봇·온라인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국내 물류 로봇 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김태선 기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2일부터 20일까지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대상을 최소화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각 동의 신청을 받아 동별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소화기 사용법, 방독면 착용법에 대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시 발생 후 4분 이내에 처치해야함을 강조하며 교육생 모두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구는 법적 설치의무기관인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서대전역, 야구장과 설치 비의무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오월드 등 총 148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으며, 위치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심정지 환자는 골든타임 내 신속·정확한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이번 교육을 통해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시, 코로나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확대

동선 공개된 소상공인 대상 개별 전화안내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동선 공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145개소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8월과 9월, 10월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대전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빠짐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 동선이 공개된 피해 점포는 600여개 점포로 확인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신청안내 및 접수를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확진자 방문여부도 지원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당점포에 개별 안내한다.

지원내용은 확진자 방문 후 영업 재개장 시 소요되는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 비용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재개장 비용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가지고, 12월 18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단란주점, 도박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380-3084)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지원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접수창구(http://sr.djbea.or.kr)를 통해 사업별로 한 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권오봉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구,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협약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2일 청사 갑천누리실에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채순기)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협약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년부터 3년간 대전 서구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전시 지정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구와 중구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으로 양육 공백 해소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덕구 석봉동 '카페 연'

대덕e나눔 8호점으로 지정

대덕구(박정현 구청장)는 12일 석봉동에 위치한 '카페 연' 커피숍을 대덕e나눔 8호점으로 지정하고, 선결제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침체된 경제도 살리고 나눔 공동체를 키워가고자 추진하고 있는 대덕e나눔은, 그동안 대덕구 관내 커피숍·서점·꽃집 등 7곳을 지정점포로 운영해 왔다.

대덕e나눔은 주민 모두가 나눔을 실천해 더불어 잘사는 행복대덕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지정된 점포에서 상품을 미리 결제해 친구·연인·가족 등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에게 그 상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눔운동이다.

상품 구매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결제해야 하며, 결제를 하면 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구매자는 그 쿠폰에 결제된 상품을 이용하길 바라는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을 기재하고, 결제된 상품과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지정점포에 마련된 게시판에 쿠폰을 부착하면 된다. 쿠폰을 받은 사람이나 적시된 사람은 누구나 그 쿠폰에 명시된 상품을 지정점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대덕e나눔 지정점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덕e로움 사용자 이벤트를 실시하고, 골목상권별로 지정점포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겨울의 길목에서, 사랑이 담긴 커피 한 잔을 내 이웃과 나누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대덕e나눔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대덕e나눔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고 나눔의 정은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지정점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농협대전공판장,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지역 사회공헌 활동 전개

농협대전공판장은 12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김장배추 2000포기를 전달하고,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는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매서운 추위와 힘든 작업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과 보람된 마음으로 웃음이 가득한 하루였다"고 전했다.

송필룡 사장은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대전공판장은 지난 2월에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을 위해 성금 3600만원을 지자체에 기탁했고, 여름철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5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고 있다.

송병배기자

보육사업발전 유공자 동구 '표창장' 수여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보육사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영유아의 안전한 건강성장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황인호 동구청장,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속에 진행됐다.

구는 열악한 보육현장에서도 장기간 근무하면서 보다 질 높고, 창의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발전에 기여한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교직원의 노력과 헌신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보육현장이 만들어지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보육교직원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 동 정 ● ● ●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

황선봉 예산군수= 13일 오전 11시 충령사에서 열리는 제40회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한국판 · 충남형 뉴딜 연계 예산형 뉴딜 사업발굴 보고회

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한국판 · 충남형 뉴딜과 연계한 예산형 뉴딜 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와 충남도 뉴딜사업과 연계한 예산군의 다양한 미래먹거리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보고된 예산형 뉴딜사업은 총 64건으로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등 디지털 뉴딜 37건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 20건 △군민안심 감염병 전문 진료센터 구축 등 안전망 강화 7건이다.

앞으로 군은 미래 먹거리가 될 대규모, 장기계획 예산형 뉴딜사업을 추가로 발굴,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예산형 뉴딜사업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황선봉 군수는 "우리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의 뉴딜 정책에 발맞춘 다양한 사업을 예산형 뉴딜사업에 담을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예산형 뉴딜사업 추진에 군정의 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구 기자

자랑스러운 맛집 100개소 선정 충남도 '맛을 찾아~' 책자 발간

충남도는 12일 도내 시 · 군의 특색 있고 자랑스러운 맛집 100개소를 선정해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도를 방문한 여행객과 도민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맛집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100개소를 엄선해 대표 음식의 사진과 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 가게 세부 정보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안심식당 목록과 각 시 ·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도 수록해 지역의 맛과 멋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반 크기의 책자와 함께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소책자도 발간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도 제작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의 관련 공공기관과 관광협회 등에 책자를 배부하고, 국내 · 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책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와 관광업계를 활성화하는 작은 밀알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범 군민 서명운동 시동

홍성군, 지역뉴스 중요성 · 재난방송의 중요성 대대적 홍보

홍성군은 'KBS 충남방송총국' 내포신도시 건립을 위해 지역뉴스의 중요성과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범도민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한 10만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성군사회단체를 대표하는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율방범연합대,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자유총연맹 등과 연대해 범 군민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홍성군 행정지원과는 지난 6일에는 서울혁신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정책컨벤션 페스티벌에서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당위성을 알리며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추진 중이다.

한편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로 서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KBS에 전달하고자 지역 내 사회단체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내포신도시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도 경영악화를 이유로 설립을 미뤘던 KBS는 홍성읍 월산리 기존 KBS부지 판매 대금 약100여억 원을 내포신도시에 재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최승천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장은 지난 11일 홍성전통시장 마늘전에서 이같이 밝히고 KBS충남방송총국 설립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지하공동구 재난 대응 세종소방 효율화 나선다

소방 · 군 · 경 지휘관 지하공동구 재난 공동대응 논의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가 11일 연동면 지하공동구 관리사무소에서 군 · 경 지휘관과 지하공동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 시 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지하공동구는 BRT도로 지하에 난방수, 통신설비, 전력설비 등이 설치돼 있는 국가중요시설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대훈 세종소방본부장, 장익선 세종시 경비단장, 안태정 세종경찰서장이 참석해 기관별 임무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적 침투 및 테러 발생 등으로 지하공동구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인 조사부터 현장대응 · 복구까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인 지하공동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은하수공원에 생명사랑 표지판 설치 나선다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 업무협약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현진)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이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힘을 모은다.

이날 은하수공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현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시설관리공단 이동환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문화센터인 은하수공원을 생명사랑존으로 지정,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와 애도 문구가 적힌 '생명사랑 표지판'을 설치 · 운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및 생명지킴이 양성, 웰다잉 관련 교육 추진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의뢰 · 연계 체계 구축 ▲자살 예방 및 선진 장례 문화 전파에 관한 홍보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현진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열리게 됐다"며 "은하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삶의 이유를 떠올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위기개입 사례관리, 교육 · 프로그램, 생명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전화(044-861-8521~7, 9)로 사전 연락 후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김태선 기자

충남도, 초광역 대기환경 개선 업무협약 체결

4개 기관과 당진 · 평택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맞손

충남도는 12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등 4개 기관과 당진 · 평택항만 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초광역적 사업이다.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종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경과보고, 협약 서명 및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당진-평택항만 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연구용역 협력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노후차 저공해 조치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관련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협약기관별 이행해야 할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회의 등을 통해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환경문제 해결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협약기관과 함께 초광역적 협력을 펼쳐 미래세대를 위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 · 제철 등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 추진 등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정환 기자

불법 주 · 정차 주민신고 한 곳에서… '안전신문고' 통합 운영

홍성군, 주민신고제도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불편 최소화

홍성군이 주민신고제도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안전신문고'앱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1월 26일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을 '안전신문고'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한다.

군은 그동안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소방시설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는 '안전신문고'앱에서 그 외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인도 ▲안전지대 등)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왔으며 신고내용이 비슷해 주민들의 혼선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민분들께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군에서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전신문고 통합운영으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 주 · 정차' 신고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지난 5일부터 생활불편신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이 전면 중단됐다.

르노삼성자동차 세종대리점, 착한가게 가입 르노삼성자동차

세종대리점(지점장 김준영)이 12일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가 추진하는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준영 지점장(가운데)과 직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교육 수강생 모집

세종시, 1회 총 2시간 교육 수료 후 고용 연계까지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2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은 텍스트, 음성, 이미지 데이터 등에 라벨이나 주석을 달아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말한다.

㈜에이모와 협력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19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5주간 매주 20명씩, 총 100명을 목표로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12일부터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민의창, 신청접수 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수강생은 1회 총 2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에이모와 취업 연계를 통해 프리랜서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인공지능 분야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단기 부업이 필요한 청년부터 컴퓨터에 익숙한 노년층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은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교육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이라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우/리/동/네

천안시농업인한마당큰잔치추진위원회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천안시 9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농업인한마당큰잔치추진위원회(위원장 안종근)가 지난 11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과 농업기관 관계자, 내빈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농업인의 날은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회적 · 농업적 위험요소가 많아 예년 행사에 비해 크게 축소해 시상식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농업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온 농업인을 포상하며 코로나19와 54일간의 긴 장마,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상심이 컸던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서는 2020년 천안시 최고농업인으로 선정된 과수분야의 이관희 농가(서북구 입장면) 등 8명이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성남면 조종복 천안농업사랑모임 회원 등 3명이 천안시의회 의장상을 받았으며, 광덕면 이한음 4-H 회원 등 2명이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

돌봄 프로그램 추진 방향 간담회

천안시가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돌봄 프로그램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분야 1차 지자체로서 2019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거동 불편자의 재가 독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가사지원 ▲복지용구 ▲외출동행 ▲방문목욕 ▲인지서비스 ▲주간보호를 합친 '천안형 돌봄패키지'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구성해 약 500여명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 해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통합돌봄 현장 경험 관계자 10여명은 2020년 사업을 평가하고, 2021년 융합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적합한 돌봄 프로그램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천안시 백석동 새마을협의회 · 부녀회, 제철김치 담가주기 나눔 봉사 천안시 백석동새마을협의회(회장 박민수), 새마을부녀회(회장 윤상임)가 12일 백석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제철김치 담가주기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한국장애인개발원, 포용사회 구현과 사회적 가치 실현 '맞손'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은 11월6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독립운동 가치 확산 및 장애 인식개선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포용사회 마련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천안시, 중부권 동사횡단철도 건설 촉구 나섰다

충남 · 충북 · 경북 도지사와 12개 시 · 군 시장 · 군수와 함께

국가철도망 반영 위한 공동건의문 제출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충남 · 충북 · 경북 도지사와 12개 시군 시장 · 군수 협력체(대표 박상돈 천안시장) 명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2일 12개 시군 협력체 대표 천안시장과 부대표인 울진군수와 영주시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우리나라의 횡단 철도망을 보완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21세기 친환경 교통물류수단으로 대한민국 제2의 성장을 견인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확정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12개 시 · 군 협력체 대표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중부지역 국민들의 동서축 철도건설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 구간을 반드시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3개도 · 12개 시군과 협력해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산업단지 개발과 활성화로 제조업부문 중심 14만7000명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해양 · 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으로 관광객 연 3463만명 증가 및 관광수입 3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철강 · 석유화학 · 자동차 · ICT · 바이오 · 유기농 등 지역에 분산 배치된 산업들의 상호교류도 촉진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로, 총 3조7천억 원이(제3차 국가철도 반영 노선 제외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12개 시 · 군 시장 · 군수 협력체(회장 박상돈)를 구성하고 62만명의 건설촉구 서명부 전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확정 반영,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일부구간 예타면제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한편, 철도계획의 최상위계획인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해 한국교통연구원 외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충남, 충북, 경북도와 12개 시군은 2021년 4월 고시전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이정복기자

동 정

업무협약식

박상돈 천안시장= 13일 오후 4시 연암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연암대학교 업무협약식에 참석.

박상돈 천안시장, 제2산단 방문…기업인 격려

박상돈 천안시장이 1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천안제2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업성동, 성성동 일원에 조성된 천안제2산업단지는 82만2,824㎡의 규모에 73개 제조업체가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도로확장, 전선지중화, 어린이집신축이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재생사업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 편의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설계 중이다. 2022년에는 차암동 일원에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날 박상돈 시장은 업체 방문에 앞서 입주기업체협의회 이사진(이사장 박동하)과 만나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제2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과 피해사항을 점검하고 생산시설을 살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992년 설립된 디와이엠솔루션은 '디와이엠솔루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산업용 전선과 케이블 컴파운드를 제조해 공급하는 고전압케이블 소재 전문기업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제2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제2산업단지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의 사기진작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산업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오는 20일까지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달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받았으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신청 기간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위기가구로, 휴 ·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 중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당초 제외됐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령자는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는 신청 가구에 적합 여부 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11월 20일까지 신청한 가구는 12월 10일경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위기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이번 연장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도시농업 및 스마트 팜 활성화 연구모임, 타 도시 비교견학

태안군 유기작물농장 서유채와 로컬푸드직매장 찾아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도시농업 및 스마트 팜 활성화 연구모임』(이종담 (대표의원), 김선태, 김월영, 이은상, 육종영, 배성민)은 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함께 11일 도시농업과 스마트 팜을 천안시에 적용 위한 비교견학으로 태안군 유기작물농장 서유채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았다.

이번 비교견학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물고기 양식 과정에서 나온 유기물로 작물 재배)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서유채'를 방문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팜 보급 확산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진 후 '태안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이동과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하는 먹거리 유통문화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종담 의원은 "이번 비교 견학을 통해 타 시군의 도시 농업과 스마트 팜 운영 현황을 직접 보면서 천안시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활성화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됐다."고 밝히며 "스마트 팜 보급과 확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의회는 의회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코로나19 확산대응 지역자생단체 예찰활동 강화

의용소방대와 바르게살기연합회 등 지역자생단체 회원 활용

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 의용소방대와 바르게살기연합회 등 지역자생단체 회원을 활용해 주민예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행사와 단체 활동이 취소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기초질서를 생활화 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민예찰활동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생단체는 감염병 확산방지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중이용시설 · 방문판매업의 동향파악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찰 · 홍보활동은 13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회원 20~30명이 한 팀이 되어 출 · 퇴근 시간대 고속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리에서 피켓홍보 등을 실시하고, 낮 시간대엔 음식점 · 카페 · 미용실 등과 요양 · 보호시설, 역 · 터미널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순회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각종 모임이나 단체활동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김장철 고춧가루와 젓갈류 등 합동 단속

천안시가 김장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김치 및 김치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충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천안 관내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제조업체 286개소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고추, 마늘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불량원료(병든 고추, 곰팡이) 사용여부 ▲혼합 고춧가루로 가짜 고춧가루 제조여부 ▲수입젓갈 국내산 혼합 후 국내산 표시 여부 ▲ 중국산 배추김치 국산변조(포장갈이) 행위 ▲유통기한 임의 연장 및 위 · 변조 등 행위 ▲비위생적 제품 제조 · 가공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 처분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김장철 먹거리 공급을 위해 부정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전용 풋살장 개장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 위해 개장… 10월말부터 운영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관장 윤여숭)이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 전용 풋살장'을 개장했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수요로 조성된 풋살장은 지난 8월 준공됐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10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천안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풋살장 이용환경을 새롭게 조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련관 휴관기간 동안 노후해 철거한 야외농구장 부지에 인조잔디와 충분한 높이의 안전울타리, 그늘막 등을 조성했다.

수련관은 풋살장 시설 방역소독 실시 및 시설입장 전 증상여부 확인, 이용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고문의
(042)538-3030

청양소방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청양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11일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현장대응능력 배양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기술`응용능력 강화를 위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종사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사전 지도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과 11일 2일에 걸쳐 시내버스, 택시운수종사자, 이용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쳤다.

건협 대전충남지부『우리누리』 사회공헌 건강검진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건강증진의원(원장 노은중)은 1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누리 장애인 16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랑의 연탄 나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사원대표 박태민)은 지난 11일 연탄사용 8가구에 300장씩 총 2400장의 연탄과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50박스, 휴지 30박스를 석봉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논산소방서, 외국인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실시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관내에 있는 외국인(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몰군경유족회 대전지부-봉사체험교실, 난방유 지원 실시 전몰군경유족회 대전시지부(지부장 김용득)와 대전봉사체험교실(회장 권흥주)은 12일 지역 내 나홀로 가족을 위한 든든한 난방유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달 대전지방보훈청-대전보훈단체-대전봉사체험교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약식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성인남녀 37%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관계 멀어져"

< 사람인 >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간관계' 대해 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인남녀 10명 중 4명은 지인들과 실제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396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간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37%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들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62.1%였고,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답변은 0.9%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50대'(49.4%), '40대'(43.2%), '30대'(42.4%), '20대'(26.5%) 순으로 사이가 멀어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디지털 친화적인 젊은 세대일수록 언택트 소통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 인간관계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지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코로나 블루'가 심화된 응답자도 상당수였다. 지인들과 멀어졌다는 응답자(1,255명) 중 절반 이상(54.3%)은 '우울함이 가중됐다'고 답변했다. '별로 영향 없다'는 34.3%,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응답도 일부(11.3%) 있었다.

실제로 개인적인 만남의 횟수도 줄어 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월 평균 4회 지인을 만났지만, 이후로는 평균 2회의 만남을 한 것으로 조사돼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3,396명) 중 84.3%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인과의 만남을 결정하는 기준도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중요한 일은 직접 만난다'(54.1%)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가능한 한 메신저 등 온라인으로 대체한다'(39.5%)가 뒤를 이었다. '아예 만나지 않는다'도 6.4%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맥을 줄여나가는 '인맥 다이어트'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고 있다'는 응답이 43%로 집계됐다. 이는 대면이 줄어들면서 얕은 인간관계는 유대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거리두기를 계기로 인맥 다이어트를 실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21.1% 있었다.

이같이 '인맥 다이어트'를 시도하려는 응답자(718명)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워서'(52.8%, 복수응답)를 꼽았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49.6%),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어서'(32.2%),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어서'(29%), '진짜 친구를 찾기 위해서'(15%), 'SNS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 내 정보를 알리기 싫어서'(10.4%) 등을 들었다.

이들이 정리하고 싶은 인맥 1순위는 '최근 1년간 최소한의 소통도 없었던 사람'(49.2%, 복수응답)이였다. '앞으로의 교류 가능성이 적은 사람'(49%)이 바로 뒤를 이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34.5%), '얼굴조차 잘 생각나지 않는 사람'(31.9%), '정치나 종교색이 강한 사람'(17.3%) 등의 순이었다.

이정복기자

전남 나주 금성산에 국립나주숲체원 개원

전남 나주 금성산에 국립나주숲체원이 개원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12일 전남 나주시 금성산길 116번지에 한창술 서부지방산림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나주숲체원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역사 깊은 나주의 병풍산으로 알려진 금성산 일원에 자리 잡은 나주숲체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문화시설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00억 원을 들인 나주숲체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3953㎡)에 대강당, 체험센터, 휴양관, 식당 등으로 조성됐다.

이창재 원장은 "나주숲체원은 서부권역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식품·공중위생 직능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시지부 비롯 12개 식품·공중위생 직능단체장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근 아산지역의 급격한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과 식품·공중위생영업자들의 불안이 커져감에 따라 오는 12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시지부를 비롯한 12개 식품·공중위생 직능단체장과 코로나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는 아산시에서 영업중인 9,000여개의 식품·공중위생업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코로나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현장에 적합한 효과적인 코로나 예방활동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참석대상은 중점관리대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과 일반관리대상인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 숙박업, 세탁업, 추출가공업, 농산물가공업 등이 있다.

이 날 위생부서에서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업소 안에서 1m 띄어 좌석배치 또는 칸막이 설치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배려석 지정하기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 또는 종이서명부 작성하기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하기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오효근 위생과장은 "이러한 노력들이 코로나 감염의 최종방어선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식품 공중위생업소 현장에서 방역방법에 대한 좋은 안건과 아이디어가 많이 논의되길 기대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생 정책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NH농협은행 직원의 신고에 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충남 서천경찰서(서장 이상근)는 11월 12일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112신고로 1,800만원을 보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NH농협은행 장항지점을 방문하여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협 고객인 조씨가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1,8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기존의 현대캐피탈에서 1800만원을 대출받은 조씨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대캐피탈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현재 현대캐피탈에서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고 신한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면서 채무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대캐피탈 홍성지점으로 가져올 것을 요구하여 조씨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1,800만원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이를 지켜보던 농협 직원은 피해자가 동시에 다수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화를 받아 사리를 분별치 못하고 있어 현금을 인출하여 대면 변제하는 방식 또한 보이스피싱의 일종임을 안내하고 출동한 경찰과 협업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 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처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통해 서천군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소방서,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백화노인복지관 3층 백화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됐던 소방안전교육을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히 예방수칙을 준수해 재개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재대응매뉴얼 ▲119 신고요령 및 다매체 119신고 서비스 안내 ▲완강기 사용법 및 주의사항 ▲소화기 사용 및 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 체험 및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조수민 교육담당자는 "앞으로도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방식과 비대면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교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은 소방안전교육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대전시,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총력

포획단 확대운영,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대처요령 홍보 등

대전시는 최근 야생멧돼지 도심 출몰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인명과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는 자치구에 구성된 기존 114명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단과 더불어 각 구별 추가인원을 투입해 포획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대전시의 3년간 멧돼지 포획실적은 2017년 244마리, 2018년 294마리, 2019년 368마리, 2020년 10월까지 470마리가 잡혔다

또한 멧돼지 출몰에 대비해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대처요령'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멧돼지 출몰 예상지역 75곳에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는 ▲소리치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멧돼지의 눈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자리를 피할 것 ▲돌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를 하지 않을 것 ▲공격 위험을 감지하면 주위의 나무, 바위 등에 몸을 신속히 피하는 것이 안전한 대처법이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하여 멧돼지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인 저녁 6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야간산행, 공원 산책 등을 자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공주소방서,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당부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장판, 전기히터, 화목보일러)은 겨울철 사용이 급증하며 부주의 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 사용 방법에는 ▲안전인증제품 확인 ▲전기장판은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사용 ▲전열기구 사용 전 플러그 손상·전선 피복의 벗겨짐 등 확인 ▲외출 시 전열기구 플러그 뽑기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비치 등이다.

공주=정상범기자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실시

보령소방서,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맞이 화재예방 캠페인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지난 11일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보령시 전통시장 일대에서 화재예방 가두 홍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먼저!'라는 슬로건 아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소방캐릭터 영웅이 탈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보령=김태선기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 "부실 · 날림 · 비전문성"

이상헌 의원, 대전 · 광주 · 부산 구축 현장 가봤더니 '우려투성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이 엉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공 시기를 늦추더라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콘텐츠진흥원에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17일, 이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이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에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전국 여러 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그 중 부산(93.25점), 대전(87.97점), 광주(83.41점) 3곳이 선정되어 경기장 구축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업은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선정도시별 각 설계 · 발주 · 사업자선정은 지역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아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상 모든 도시가 올해 6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세 곳 모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은 설계범위가 증가하고 건축 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 11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경기장 구축 장소인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사용과 관련해 대학 측과 협의가 지체된 것을 지연 사유로 꼽았다. 대전은 설계용역이 유찰되고 정밀구조 안전진단 추가에 따른 일정이 지체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와 대전 모두 올해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실에서 직접 경기장 구축 현장을 찾아본 결과, 세 곳 모두 공사 진척이 매우 더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은 경기장으로 쓰일 공간의 내부를 철거만 해둔 수준이었다. 광주는 방송 및 음향 시설 등을 설치할 곳은 텅 비어 있었고, 주 경기장 무대 공간은 기존 시설 그대로인 상태로 공사의 흔적은 발견할 수조차 없었다. 부산은 세 곳 중 그나마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도심 한복판 건물의 고층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엔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연내 완공이 이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며, 완공을 하더라도 날림 공사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문제도 지적된다. 통상 이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할 때는 '턴키방식'(일괄설계시공)로 진행한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방송 시스템과 음향 시설, 환경 구조물 등이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곳 모두 인테리어 · 전기 · 소방 · 공조 · 철거 등 분리발주로 진행 중이다. 시공자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바랄 수 없고 공사기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진흥원측은 현행법상 분리발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방송장비가 주가 되는 경우 통합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통합발주 방식으로 지어졌다.

설계사업도 문제투성이였다. 세 곳 모두 공모를 통해 건축사무소를 설계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건축사무소는 이스포츠 경기장 구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건축사무소였다. 이스포츠 경기장의 방송 특성 및 시스템과 이해도가 낮다 보니 방송시스템보다는 다른 곳에 치중하여 설계되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경우 방송시스템 구축에 1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이스포츠 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산 부족, 비전문성 자문 · 선정위원 문제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구축 현장을 확인해보니 나아진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우려만 늘었다. 콘텐츠진흥원은 완공 시점을 늦추더라도 구축 사업 상황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복 기자

당진교육지원청, 진로체험 박람회 실시

지난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중학생 대상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숙)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및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박람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진로체험 박람회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청소년의 진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3D 프린팅, 소방관 체험, 도시기반 시설 안전 관리사 등 교과서에서 배우기 어려운 직업인들의 직업정신 및 삶의 열정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체험 과정을 통해 학생들과 대면으로 맞춤형 진로 개발을 지원하며, 나만의 UCC 만들기, 드론 조종,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3D펜 체험 등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다채로운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박혜숙 교육장은 "이번 진로체험 박람회를 통해 학생의 꿈 · 끼를 계발하고 진로탐색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코로나 시대에도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진로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최근수 기자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에 전기차 충전소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10대를 설치한 대규모 집중충전소를 탕정온샘도서관에 설치하고 11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부 지원으로 급속충전기 10기를 설치하고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비가림 캐노피, 주차관리시스템 등 편의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췄다.

낮 시간에는 충전시간을 활용해 탕정온샘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 '온샘 책읽는 EV 충전소'로 명명했으며, CCTV, LED조명 등이 설치돼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첫선을 보인 집중충전소는 전기차 10대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며 24시간 개방되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에 대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758대를 보급했으며, 125면에 충전 가능한 충전소를 설치했다. 아울러 관내 공영주차장 주요 관광지 및 민간시설 등에 꾸준히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아산 =리량주 기자

충남도립대, 현장방문 컨설팅 및 멘토링 실시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창업지원교육센터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마케팅을 비롯해 노사 및 재무문제,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방문 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번 멘토링에는 농산물가공과 어르신돌봄서비스 등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하는 7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창업과 지속성장을 방점으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실무 응용 ▲식품제조에 필요한 표시기법 및 광고법 이해 ▲온/오프라인 광고법 등 홍보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 최신 정책동향 공유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 잠재력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기업 창업 또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충남도립대학교 창업지원교육센터(041-635-6663)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 =정상범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 교실에 기가급 무선환경 구축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교실에 무선망(Wi-fi) 구축 사업 추진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1월 말까지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교실에 무선망(Wi-fi)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학습공간 내 안정적이고 원활한 원격교육 접속환경을 조성하여 온 · 오프라인 연계 교육 등 미래교육체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2년 개청 이래 세종시교육청은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일반교실에 무선공유기(AP)*를 100% 구축 완료하여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국비와 지방비 약 4억 원을 투입하여, 내용연수 경과로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31개교의 810개 교실과 추가설치가 필요한 6개교의 18개 교실 총 37개교 828개 교실에 무선공유기(AP)를 설치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무선공유기(AP)는 와이파이-6 기반의 제품으로 기가급 이상의 속도가 보장되며, 향후 속도 개선이 용이하여 학교 무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구축 운영 중인 무선랜 컨트롤러와 연동이 가능하여 유지보수, 무선망 관리, 기술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박찬웅 행정지원과장은 "학교 구성원이 학교 내 모든 학습 공간에서, 원격교육에서 더 나아가 온 · 오프라인 융합 교육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태선 기자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제3 · 4차 '생명존중 캠페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Wee센터는 11월 9일 대전느리울중학교, 11월 11일 대전도마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제3 · 4차 '생명존중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 행사는 학생들에게 Wee센터 캠페인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Wee센터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생명존중배너를 게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충남도교육청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모두가 신나고 재밌는 스포츠 축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형식의 대면 접촉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속되는 등교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충남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가 신나고 재밌는 스포츠 축제'라는 표어로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되는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충남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신청한 후 혼자 연습하고, 개인의 실행 영상을 지정 플랫폼(http://sportsclub.or.kr)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참가한다. 초중고 245교 4080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대회 모든 종목은 혼자서 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농구 자유투, 벽을 향한 배구토스, 왕복달리기, 매달리기, 턱걸이, 플랭크, 치어리딩 7종목은 충남 지역 경기만 한다. 제기차기, 벽을 향한 배드민턴, 스포츠 컵쌓기, 저글링, 줄넘기 버피텐, 축구공차기, 티볼 포구 8종목은 지역 경기를 마친 이후 우수한 선수는 실시간 원격으로 진행되는 전국 대회에 참여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온라인 스포츠 축제의 장이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체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추후 각 종목별 영상은 학교 체육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제작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우리쌀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해요!! 공주상서초등학교(교장 노종우)는 지난 11일 학생 등교 시간에 맞추어 우리 쌀 사랑하기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가래떡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서천도서관, 어르신 특강 '행복을 만들어가는 노년의 삶'

은빛문해교실 학습자 대상 운영

충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 서천도서관은 11일 오전 10시 은빛문해교실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특강을 운영했다.

이날 특강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소장 임동훈 강사의 강의로, 어르신들이 긍정의 심리를 이용하여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진행하였다.

또한, 노년의 시기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족의 힘이, 행복의 기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강의 중 다양한 건강 박수치기로 수업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서천도서관은 문해교육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열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도서관 홈페이지(https://sclib.cne.go.kr) 또는 전화(☎953-1518, 82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천 =이정복 기자

회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장김치지원사업 '김장행사' 실시 대덕구 회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형식 관장, 박재완 동장)는 12일 회덕동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동절기 맞이를 위한 김장행사를 실시했다.

대전복지관, 사랑의 김장나누기 "맛있는 김치! 즐거운 나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명옥)은 12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김장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2020 사랑의 김장나누기 '맛있는 김치!, 즐거운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코레일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의 후원과 한전KDN 대전충남지역본부가 후원 및 봉사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직접 담근 1200kg의 김장김치는 대덕구 저소득 아동 · 어르신 120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전달된다.

행사에 참여한 정홍기 봉사자는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병배 기자

충무교육원, 백제역사유적지구 탐방 충무교육원(원장 서연근)은 충남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우리 지역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 보기 위해 「우리지역의 세계유산 바로 알기」 역사 인문 탐방 과정을 실시했다. 12일, 온양 한올중학교(아산) 독서토론 및 글놀이 동아리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부여 · 공주 지역에 있는 부소산성, 정림사지 5층석탑, 신동엽 문학관, 궁남지, 무령왕릉을 탐방했다.

'공주형 푸드플랜 함께 만들기' 열려

공주시, 지역생산 제철 농산물 꾸러미 만들어 경로당 등에 전달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공주형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치인식 공유, 지역농산물 홍보를 통한 공주시민의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공주형 푸드플랜 함께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공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장과 류승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해 공주시여성의용소방대 및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한국걸스카우트공주지회, 공주시자원봉사회 등의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대한한돈협회 공주시지부에서 기탁한 한돈 4,200kg과 소농 생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마늘, 대파 등 제철 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박스를 포장해 관내 경로당 423개소와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및 공주시자원봉사센터 등에 전달했다.

류승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시의 균형적인 먹거리 공급과 이용을 장려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공주형 푸드플랜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자 비대면 교육 진행

관련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88개소 3시간 법정 의무 교육 실시

서산시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집합교육에 따른 이동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교육 전문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교육 위탁 협약을 맺고,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집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의무교육 대상은 농어촌민박사업자 88명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된다.

기기사용에 익숙지 못한 IT취약 계층이나 교육 수료가 어려울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지도를 통해 수강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임종근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모두 법정교육인 소방안전 및 위생서비스 교육에 적극 참여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식품유통과(660-3939)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김정한기자

롯데百 대전점 마지막 정기세일

29일까지 17일간 겨울 정기세일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남승우)이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패션 페스타'를 테마로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먼저 15일까지 한섬, 바바패션, 삼성물산, 시선인터내셔널 브랜드가 참여하는 '4大 패션그룹 페어'가 펼쳐진다.

한섬의 '타임', '마인', '시스템' 삼성물산의 '구호', '르베이지', '빈폴' 등이 참여해 구매 금액대별 '5% 상당의 엘포인'트 적립과 함께 '더블 마일리지', '금액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층 여성영캐주얼 브랜드인 '오조크', 'EnC', '나이스크랍', '씨', '케네스레이디' 등은 10~30% 세일을 진행하고, '금강제화와 '랜드로바'에서는 20% 세일을 실시한다.

6층 유·아동 매장에서는 '프렌치캣', '빈·블루테일' 등이 10~20% 세일에 참여하고, '밍크뮤·블루독베이비'는 30% 시즌오프를 진행한다.

7층 언더아머 매장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20년 F/W 제품을 30% 할인한다.

1층 '코치' 매장에서는 F/W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해 '최대 50%'인하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지하1층 삼성·LG·위니아 매장에서는 '에어컨 역시즌 특별 기획전'이 열려, 에어컨을 특가에 구매할 수 있고, 현대카드로 구매 시에는 금액대별 10%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송병배기자

바이오의약품 분야GMP-서클 회의

대전식약청, 현안사항 논의 등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13일 대전식약청에서 대전·충청·대구·경북지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GMP-서클(Circle)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최신 GMP규제 관련 현장 적용상황 공유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련 현안사항 논의 등이 진행된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GMP-서클 회의 등을 통해 정부·업계 간 제조·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 교류 기회를 마련해 국민께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선문대 치위생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회장 김정순)는 지난 11일,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교수 임근옥)와 발달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이날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및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자원 연계 서비스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치위생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 이번 협약을 통해 비대면 구강보건교육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근옥 교수는 "이번 협약이 발달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재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보건의료인으로서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순 지회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롯한 방학프로그램과 재활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장대봉사 참여로 사랑나눔 실천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김선관)는 지난 11일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와 대전사랑운동본부가 주관한 '2020 사랑의 김장대봉사'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에 힘을 보탰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이번 김장대봉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후원했으며, 한전 사회봉사단은 대전시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총합 6만kg에 달하는 배추김치를 만들어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김장대봉사에 매년 참여해 사랑의 김치나누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육시설 아동자립을 위한 교육기부사업, 영세 복지시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위생물자 후원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이밖에도 연말 소외계층을 위한 사내모금과 후원활동을 추진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을 지속해 실천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당진시,건축 9개, 토목 15개… 22개 업체 선정

당진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해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해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수행기관으로 22개 업체(건축 9개, 토목 15개)를 올해 11월부터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시공자(피허가자)가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해 점검을 시행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앞으로 발주자(허가자)가 당진시에 등록된 22개 점검 수행 기관 중에서 지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당진시는 현재 계획 중인 건설공사 현장부터 이번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반영할 계획으로, 전체 22개 기관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수행기관이 지정된다.

이번에 당진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하나엔지니어링, 성지지반기술, 지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대웅 엔지니어링, 한빛엔지니어링, 세움종합기술공사, 세종 종합기술공사(건축·토목), 대한 안전진단 연구원, 세일종합기술공사, 우경엔지니어링, 장맥 엔지니어링, 드림이엔지, 한맥기술, 성건 엔지니어링, 에스앤피 구조 엔지니어링, 재성 기술단, 탄탄안전주식회사(건축·토목), 천마 기술단, 에스제이본구조, 에스알이엔씨, 부경 엔지니어링, 라은 건설이다.

당진=최근수기자

농촌에 미래 투자한 젊은 여성농업인 '화제'

청양 이효진씨, 지난해 귀농 후 친환경 표고 생산

"저희 '농부의 정원'에서는 맛있고 싱싱한 먹거리에 대한 무한 책임감으로 고객님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상품만을 공급하도록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양군 대치면으로 귀농한 후 표고버섯 농장 '농부의 정원'을 설립한 이효진 대표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30세 젊은 여성농업인인 이 대표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책임감과 색다른 판촉활동을 선보이는 등 6차 산업화의 또 다른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 안전성을 농장 운영의 중심에 둔 이 대표의 철학은 버섯 재배 준비 과정에서부터 남다르게 나타난다.

그는 사전 수질검사에 이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참나무 톱밥만 사용하고 재배 이후 잔류농약 검정증명 또한 발급받고 있다.

이 대표는 "청양지역은 21세기 생명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건강한 땅에 부끄럽지 않은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표고와 건표고 제품을 출시했다. 이 대표가 출시한 제품은 충남도 농산물 공식쇼핑몰 '농사랑'이나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재배 방법과 제품 다양화는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시대를 맞은 국민들의 건강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대표처럼 청년세대의 농업 투신은 농촌을 젊게 만들면서 생산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대표의 활동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식량주권 확보와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우리 군은 청년농부 발굴과 육성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콩선별장 운영 '인기'

아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콩선별장이 콩 재배 농가들의 일손을 많이 덜어주고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풍구 및 소형 콩선별기 임대도 병행하지만 농업인들은 정밀한 콩 선별을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설치된 대형 콩선별기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콩선별장에서는 대형 콩선별기 2대를 설치 가동하여 하루 평균 3,400kg 정도의 콩을 정선할 수 있다. 사용료는 80kg기준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아산시 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콩선별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효율적인 선별작업을 위해 탈곡 후 풍구 작업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041-537-389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민선7기 공약 '농기계 대여 은행 운영 시스템 개선'과 연계, 지역농업인들이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편리하게 콩정선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온양농협, 선도농협, 탕정농협 등 3개 농협에 대형 콩선별기 3대를 위탁공급 했으며 희망하는 지역농협에 추가로 대형 콩선별기를 위탁공급 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동정

최종보고회

오세현 아산시장=13일 오전 8시 30분 보건소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와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사음전략산업 육성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

김장 나누기 행사

김홍장 당진시장=13일 오후 2시에 당진화력 제1회처리장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 오후 6시에 당진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당진축협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

면장과의 소통의 날

가세로 태안군수=13일 오전 8시 2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읍면장과의 소통의 날'에 참석

보고회

김돈곤 청양군수=13일 오후 3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회에 참석.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아산시(시장 오세현) 육아지원사업의 거점이 될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11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 실현'을 모토로 운영된다. 국비 10억, 도비 8억, 시비 42억 등 총 60억이 투자됐으며, 건축연면적은 2,266.35㎡(약 686평) 지상 3층 규모로 아산시 실옥로 46에 건립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수유실, 상담·치료실, 육아카페,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0년 3월 준공 후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시설보완과 세부 운영 프로그램 정비를 거쳐 11일 정식 개관했다.

센터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황배)에 민간위탁되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보육교직원 교육·상담·컨설팅, 보육정보 제공 등 다양한 보육 종사자 지원은 물론, 부모교육과 상담, 육아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 육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세현 시장은 "센터 인테리어부터 빛마루·열매뜰 등 공간이름까지 하나하나 아이들을 위한 정성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빠른 시일 안에 자리매김해 아이들은 즐겁고 부모님들은 믿을 수 있고, 선생님들도 행복한 아산시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댄스컬 안드레아 〈김대건〉 공연

당진 문화재단, 13일과 14일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전석 무료 공연

당진 문화재단이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댄스컬 '안드레아 김대건'을 제작해 13일과 14일,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온라인 공연과 문화 소외계층 초청공연, 일반시민 대상 전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한다.

당진 문화재단은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장르인 뮤지컬과 춤을 넣은 댄스컬 장르를 통해 그동안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기로 결정했으며, 전국적으로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를 조명해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지만, 댄스컬의 장르로는 국내외 최초로 당진에서 시도해 제작했다.

제작한 공연은 2021년 김대건 유네스코 200주년 기념으로 당진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2022년은 충남권 공연장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안드레아 김대건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당진 문화재단 곽노선 문화사업부장은 대전 예술의전당 17년 베테랑 공연장 전문가로 지난 2월 당진 문화재단에 입사해 당진만의 고유한 콘텐츠 공연을 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두 달 만에 4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 제작 프로그램에 댄스컬 안드레아 <김대건> 작품을 신청해 선정받았으며,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을 섭외해 참여시켰다.

'안드레아 김대건'에는 ▲연출 최석열 상임안무가(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 ▲음악 시온성 음악작곡가(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 ▲기술감독 김성훈 감독 ▲무대감독 조영준 감독 ▲박효정 분장디자인 디자이너 ▲김장연 영상디자인 ▲최희정 의상 디자이너 ▲최영은 무대디자인 ▲당진 문화재단의 원상오 문화사업팀 차장, 홍진웅 무대감독, 이동원 조명감독, 이양훈 음향감독이 함께한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 작은영화관 3일 간의 특별한 영화 선물

17~19일 벌새·그린북 등 영화 10편 무료 상영

최근 태안군 직영으로 전환돼 효율적·안정적 운영으로 군민 문화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태안 작은영화관(이하 작은영화관)'이 군민들에게 '색다른 영화 경험'을 선사한다.

군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개최, ▲공감과 위로의 성장영화 ▲영화는 선율을 타고 ▲프로그래머 추천작, 세 가지 주제로 3일 간 총 10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그동안 작은영화관을 찾아준 군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군 직영으로 전환된 작은영화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 관람권은 이달 9일부터 작은영화관 매표소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영화 상영 시간표는 작은영화관 홈페이지(https://www.taeancinem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영 영화는 ▲벌새 ▲빅트립:아기팬더 배달 대모험(더빙) ▲시동 ▲원더 ▲그린 북 ▲리암 갤러거 ▲에릭 클랩튼:기타의 신 ▲신문기자 ▲키드:채플린, 그리고 판소리 ▲시크릿 뮤지엄 총 10편이다.

특히, '키드:채플린, 그리고 판소리' 관람 후에는 연창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무성영화와 어우러진 다양한 판소리 장단'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고, '빅트립:아기팬더 배달 대모험(더빙)'이 끝난 뒤에는 영화 속 등장 캐릭터와 영화 이야기를 머릿 속에 떠올리며 나만의 개성과 상상을 더해 에코백을 꾸미는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농업인의 날' 우수 농업인 시상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1일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조촐하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열고 우수 농업인 시상에 이어 농촌지도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우수 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기타특별부문(강소농) 명선식(청양읍)'하태석(운곡면) ▲임산물 가공'유통'수출 김금자(대치면) ▲원예특작 생산'가공'유통 김영로(정산면) ▲우수 귀농귀촌인 서봉원(목면) ▲임산물 생산 강상구(청남면) ▲축산물 생산 허전회(장평면) ▲농산물 생산 이인석(남양면) ▲축산물 가공'유통'수출 임일환(화성면) ▲농촌관광개발 유대조(비봉면) 씨 등이고, 현경순(화성면)'김진섭(화성면)씨가 원로농업인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국화 정원에 전시된 다륜대작, 형상국, 입국작 등 수천여 점의 다양한 작품이 눈길을 모았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군내 농업인들이 지난봄부터 정성을 다해 가꾼 형형색색의 국화는 특유의 향기와 우아함으로 보는 이들의 가을 감성을 한껏 자극했다.

신병철 회장은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정보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며 "농업 발전과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돈곤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줄이게 돼 섭섭하지만 장마와 태풍 등 어려움을 뚫고 기대 이상의 풍작을 일궈 낸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안전하고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 우리 군 공동브랜드 '칠갑마루'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여성시민참여단 배방로 일대 야간 모니터링 실시

아산시(시장 오세현) 제3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배방로 일대에 설치된 로고젝터 모니터링 후 정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시민참여단 야간 모니터링을 통해 배방로 공수리 인근에 설치된 로고젝터(빛글씨) 작동 및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10월 실시했다.

현장 모니터링 실시 후 정례회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참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모니터링 실시 후 개선사항에 대한 후기와 제3기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의 성과보고 및 제4기 시민참여단원의 모집과 내실 있는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모니터링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원은 "지난 3기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며, "추후 제4기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에서도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희망차게 시작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그동안 어린이공원·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이순신빙상장, 양성평등거리 로고젝터 모니터링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제39호 어린이공원 페인트 도색과 환경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 출시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카드 신청 시작

태안군이 기존 지류(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한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을 도입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손잡고 '은행 방문 없이' 지역 사랑 상품권을 구매(충전)할 수 있는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을 이달 16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체크카드(NH농협은행) 형태로 만 19세 이상이면 전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chak'을 통해 온라인으로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발급 후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구매)해 태안 지역 내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엔에이치(NH)카드 가맹업소'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곳이나 태안군 외의 지역에서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연동된 엔에이치(NH)은행 결제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출금된다.

이번에 출시된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은 매달 은행 등 판매대행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해야만 했던 지류 상품권과 달리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특히 결제 시 체크카드 사용처리가 돼 기존 지류 상품권을 사용할 때 매번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은 기존 지류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상시 5%·특별기간 10%의 할인이 적용되며, 월 50만 원(지류·카드 합산)·연 600만 원까지 충전(구매)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태안사랑상품권(지류·카드형)의 발행규모는 20억 원으로, 소진 시까지 선착순 판매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10%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 구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chak' 설치·회원가입·카드 발급 신청(이달 16일부터 가능)·카드발급(약 7일 이내)을 거친 후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카드 신청은 가까운 농협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은 기존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의 단점을 보완, 휴대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은행 방문 없이 구매(충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해 '모두가 함께 더불어 더 잘사는 새태안'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개강

당진시,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담아내는 활동가 양성

당진시 마을 만들기 사업 소식과 마을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아내 주민 주도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운영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이 지난 11일 당진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강했다.

이번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과정은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6회에 걸쳐 영상 촬영, 기사 쓰기, 콘텐츠 발굴에 관심이 있는 마을리더 및 현장 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해 이론과 실습을 통해 교육이 진행된다.

동영상을 통한 개강식 축하인사에서 김홍장 시장은 "주민참여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활동가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을 소식지 발행을 목표로 소식지를 집적 기획, 취재, 제작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용 시의회 의장도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마을의 다양한 소식과 마을 만들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감대 형성에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회에서도 마을활동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영상을 통해 말했다.

한편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이후 수료자들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소식지 및 웹진 발행을 위한 편집회의 및 취재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중간보고회

서천군,관광 대표캐릭터 · 정보통신기술 접목한 전시물 제작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노박래 군수와 맹창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사업 관계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거점기관으로 선정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지역별 특화 자원 · 소재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콘텐츠 산업의 장기적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서천군은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천갯벌과 철새를 소재로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사업에서는 오토로,㈜스쿱,랜덤박스㈜가 콘텐츠 개발 · 구축 주관 기업으로 선정돼 서천관광 브랜드 캐릭터 개발, 관광 상품 개발, 조류생태전시관 내 AR연동 디오라마, 4D라이더 등을 새롭게 개발 중이다.

이번에 개발한 관광캐릭터인 까미와 또요는 12월 중 이모티콘 제작, 카드형 서천사랑상품권 디자인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며, 내달 조류생태전시관 내 AR연동 디오라마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콘텐츠 개발이 서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더욱 널리 알리며 생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신청접수

논산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예산액은 4억8240만원으로, 선정기준에 맞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여부는 자동차 등급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충청남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홈페이지(www.nonsan.go.kr)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694)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 맞춤형 건강관리 실시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프로그램을 재개한다.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는 한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방문해 건강측정, 한방진료, 운동지도, 레크레이션, 분야별 보건교육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최근 일부 경로당이 개방되면서 의료기관이 부족한 4개 면(광석 · 부적 · 가야곡 · 채운면)의 경로당을 우선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자의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코로나19 이겨내는 100세 건강약속 수첩 배부, 교육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건강측정 ▲비만도 측정 및 운동상담 ▲한방진료 ▲몸 풀기 운동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다.

참여한 주민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못해 우울했는데 마을로 직접 찾아오셔서 건강체크를 해주시니 너무 다행이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수첩이 지금 시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건강관리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100세행복과 공동체건강팀(041-746-58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산 열병합발전소 '못 짓는다'

지난 11일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부여군 승소

약 3년여에 걸친 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공방이 소송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여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이영화)는 2020년 11월 11일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부여군에 최초로 홍산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래로 수차례에 걸친 서류 보완과정 중 2019년 5월 대대적인 주민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신청 당사자였던 H사 측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급기야는 2019년 6월 28일 H사 측에서 부여군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이 민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거두어 부여군으로서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2019년 12월 27일 부여군은 최종적으로 H회사의 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였고, 이에 H사는 2020년 1월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관련허가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두는 등 가시화되는 것은 부여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하며 "향후에도 청정부여123 정책을 고수하여 부여가 굿뜨래 친환경 청정 농업도시에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룡시 청렴간담회 실시로 청렴도 향상 매진

복무관련 부정사례 전파 · 행동강령 · 청탁금지법 등 교육

계룡시는 '청렴한 계룡시를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란 주제로 6급 이하 직급별 청렴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8급 · 9급 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 그동안 느낀 조직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당한 처우라고 느꼈던 사례를 듣고 6급 · 7급 공무원들에게 개선방안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급부터 9급까지 전부서에서 총 93명의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에서 발표된 의견은 전 직원 공유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타 기관의 초과근무와 허위출장 사례를 전파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직장갑질 사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갑질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됐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공직 일반 소양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며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천군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본격 시동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한산면, 마산면, 문산면의 '마을계획단' 참가 주민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점을 찾아 개선 ·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함께 마을을 발전 시켜나가는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참여할 단원을 각 면에서 10여 명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완료된 한산 · 마산 · 문산면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11월 중으로 면별 마을계획단을 구성,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12월 중 주민총회를 위한 안건 발굴을 통해 내년 1월과 2월 중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3일 3개 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절차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마쳤으며, 향후 면별 마을계획단 운영을 통해 의제 · 사업 발굴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발굴된 의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최종 논의해 주민총회를 거쳐 승인되면, 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계룡시 찾아가는 레드서클존 운영

사업장 직접 찾아가 만성질환예방 관리 홍보관 운영

계룡시 보건소(소장 손병임)는 지난 6일 관내에 위치한 (주)엘빈즈를 방문해 건강홍보관을 설치, '찾아가는 레드서클존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쳐있는 30·50세대 직장인들을 중점대상으로 ▲혈압 · 혈당 측정 ▲스트레스 검사 및 우울선별 검사 ▲산성 · 알칼리성 체질 검사 ▲짠맛 · 단맛 미각테스트 ▲체성분 검사 및 운동처방 ▲금연 · 절주 홍보 등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스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부여군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 수상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청년, 대학교수, CEO,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청년과 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는 자체 개발한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더 나은 청년들의 삶을 위해 정책 · 입법 · 소통 등의 분야에서 노력한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를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부여군은 전국의 12개 우수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편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은 4월 선정 결과 발표와는 별도로 지난 10월 31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개최된 (사)청년과미래에서 주최하는 청년을 위한 자발적 참여형 종합 축제인 '제4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에 진행되어 상의 의미를 더했다.

부여군은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년 쉐어하우스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지원 등 다방면으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을 펼쳐 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앞으로도 청년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동 정

임시회

노박래 서천군수=13일 오전 10시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8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참석

현장방문

박정현 부여군수=13일 오전 10시 30분 초촌면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에 나선다.

서천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열려

코로나19 예방 위해 행사 축소 진행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관계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 27명을 시상하고,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품목별 지식경영실천 성과물 전시회를 가졌다.

노박래 군수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침체 등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땀 흘린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역 맞춤형 농정 실현과 살기 좋은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에서는 매년 농업인의 날에 추진한 농상품 홍보 판매전과 화합한마당 행사를 코로나19로 취소하고, '서천군 우수 농상품 온라인 판매전'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운영해 50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Talk Talk 언택트 심리방역' 호응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권경주)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한 언택트 프로그램 '마음 Talk Talk'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마음 Talk Talk'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극복, 효과적인 위기대처 의사소통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TCI기질 및 성격검사, LCSI종합성격검사, MLST-II학습전략검사 등 온라인 심리검사는 물론 전화상담, 아로마 비누 · 샴푸바, 쿠키 등으로 구성된 사랑나눔 키트를 제공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이뤄졌다.

관내 학부모 및 청소년 100명을 비롯해 5개 기관 등 총 200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로 지친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인기를 얻었다.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제공 및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041-736-2041)로 문의하면 된다.

동정

여성농업인센터 신바람소통행사

김정섭 공주시장=13일 오후 1시 30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열리는 공주여성농업인센터 신바람소통행사에 참석.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맹정호 서산시장=13일 오전 10시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참석, 오전 10시 30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다문화 이주여성과 간담회 참석.

학습단체 임원 역량강화 교육

문정우 금산군수=13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영예

김동일 보령시장이 지역 농업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의 공로로 NH농협으로부터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이성희 농업중앙회장 및 배덕재 보령시지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정책과 농협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등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이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민선6기 제7대와 현재 제8대 재선 시장으로 역임하면서 '살기 좋고 경쟁력을 갖춘 살맛 나는 부자 농어촌 조성'을 시정 역점과제로 정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보령통합RPC 및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벼 공동육묘시설 설치, 논 타작물 단지화 사업 등 최근 3년간 49억여 원을 지원해왔고, 통합RPC에는 100억 원의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연간 매출액이 600억 규모로 성장시키는 등 지역농협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해왔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농정시책 추진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구제역 및 AI 등 철통 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 경영안정화로 축산인들의 소득을 증대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만세보령쌀 공동조합법인과 함께 최고 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브랜드화한 '만세보령쌀 삼광미'는 농림축산부 주관 2015년 최우수 및 2016년 우수에 이어,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으로 평가한 2020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쌀로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먹거리 공급 ▲영농설계 및 연구개발 신기술 보급 교육 ▲미래세대 농업·농촌리더 청년농업인 육성 ▲한우경매시장 운영을 통한 축산인의 소득 증대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악취문제 해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쇼핑 채널 개설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선도해왔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 농업인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 매우 기쁘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식량자급률 향상과 수시로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를 대비한 정책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 기자

서산시, 동절기 시민 안전·총력 대응체계 가동

비상체계유지·서산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주력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간다.

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설·한파 등 재난 상황 대응에 총력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설·한파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상황관리반, 긴급생활안전지원반, 재난수습홍보반 등 13개 협업기능반으로 구성되며,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 단계별 피해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도로 제설을 위해 전진기지 운영과 제설 취약 구간에 적사함과 모래주머니 등 제설자재 및 제설차량을 현장배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쉼터 412개소, 승강장 바람막이 2개소, 발열의자 80개소를 운영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안내문자 발송 등 피해 예방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 책임하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특별 관리하고 수도 동파, 전기·가스 시설 피해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행동요령 등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석봉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자주 발생한다"라며 "겨울철 재난 종합대책 수립으로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수영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보령시, 동선 및 외부공간·구조 및 평면계획 분석

보령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수영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보령수영장 건립사업의 설계공모안을 토대로 동선 및 외부공간, 구조 및 평면계획을 분석하여 최적의 시설안을 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수영장 건립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남포면 보령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180억 원을 투입하여 지층2층 연면적 5000㎡ 규모로 시민은 물론, 선수 선발대회 및 충청남도체육대회가 가능한 50m 10레인, 관람석 200석 규모를 갖춘 3급 공인수영장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생활 수영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자 분산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충청남도 북부지역에 집중된 대형 수영장을 서남부 지역에 건립하여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시는 보령국민체육센터 내 25m 6레인, 400명을 수용할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1일 이용객 500명, 여름철에는 900명이 넘어서는 등 수영장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건강 증진 욕구에 부응할 수영장 건립이 절실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체계와 커뮤니티 공간 제공 ▲자연 채광·환기 및 체력단련장의 수영장 조망 계획 ▲디자인 요소를 통한 일사조절 등 친환경 입면 디자인 계획 ▲경제적인 실별 적정 층고 및 천장고 계획 ▲우수 재활용, 절수형 위생기구, 투수성 포장 적용으로 수자원 절약 및 우수 부하 저감 등 내외부 구조와 설비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동일 시장은 "신규로 조성될 보령수영장은 유아·청소년기 학생들의 생존수영과 현재 포화된 생활수영 이용자를 해소할 뿐만아니라 도내 각종 수영대회 유치로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최적의 시설 구조와 지역의 가치를 높일 세련된 디자인, 친환경에너지 등을 적용해 시민 편의 체육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령=김태선 기자

금산문화의집 '인삼행상을 떠난 우리 엄마' 출간

1960년대 인삼행상을 떠난 금산엄마들의 이야기

금산문화의집은 지난 11일 마을고유 이야기가 담긴 '인삼행상을 떠난 우리 엄마'라는 제목의 그림책 출간 및 낭독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재)지역문화진흥원 주최, 금산문화의집 주관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금산문화의집 필사, 컬러링 모임 회원들이 함께 팀을 이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30대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 세대 간 소통으로 잊히는 마을 고유의 이야기가 선대에서 후대로 이어지고, 진짜 초보자들이 지역의 창작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복기, 김순희, 김미영, 남인혜, 김희영 회원들은 4개월여 동안 인삼행상을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주민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견을 조율해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직접 그림도 그렸다.

책에서는 모두가 힘겹게 살았던 1960년대 후반 가족을 위해 힘들고 고달픈 인삼행상을 떠나야 했던 금산 엄마들의 이야기로 머리에 이고 다닌 무거운 인삼보따리만큼 삶의 무게를 짊어진 그들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며 그림책을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산문화의집 관계자는 "치열하게 살아온 엄마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일깨우고 사라져 가는 마을 고유의 공동체성을 재조명하고자 이 프로젝트가 기획됐다"며 "그 엄마들의 희생과 용기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금산의 힘에 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림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인 만큼 인삼행상을 떠난 우리 엄마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잊혀져가는 것에 의미를 담는 작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그림책은 2020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됐다.

금산=이정복기자

서산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완료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해 사고대응체계 마련… 업무 효율 및 편의 증진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올해 마무리 짓는다.

전산화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위치, 심도 등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진행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총1,739㎞(도로 490㎞, 상수 888㎞, 하수 361㎞)의 DB를 구축했다.

올해는 도로시설물 12㎞와 서산시 고북·음암·운산면의 상수도 시설물 39㎞, 총 51㎞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전산화를 통해 올해까지 총 1,790Km의 DB를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도로 및 상하수도 매설물 파손 예방과 비상상황 시 신속대처, 중복투자 및 이중굴착 방지를 돕고,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공공정책 기본 인프라로 활용돼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케 된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탐사 불가했던 관로들을 탐사하고, 정확도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DB의 오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면서 "지하시설물 관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산 =김정한기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1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3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공단 유호진 강사의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과 함께 공주시 일자리센터 백미현 직업상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산업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근로자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일상에서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모집

총 18과목 31명 모집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는 20일까지 2021년도에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역량있는 강사를 공개모집 한다.

모집 분야는 교육문화 서예`문인화 등 5과목, 취약지원 컴퓨터`스마트폰활용 등 4과목, 생활체육 라인댄스`몸펴기 등 6과목, 지역사회 웃음치료`풍물 등 3과목 등 총 18과목 31명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학력 및 주소지 제한은 없지만 지역 가산점이 부여되며,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 경력, 자격증 또는 수상경력이 있는 자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이다. 응시 희망자는 강사지원 신청서 및 강의계획서 등을 작성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 내에 해당 과목의 응시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응시했을 경우에는 일주일간 추가 모집을 실시한 후 서류전형 점수에서 3순위까지 면접을 실시한다. 선발된 강사들은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강사로 위촉되어 프로그램 강의를 맡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041-840-2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 기관표창 수상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우수성이 전국에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24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398개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추진체계 적정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해 균형발전성과가 돋보이는 20개 지자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금산군의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사업목표를 설정해 지자체 특화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이외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합리적 노력 전개,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힘써주신 박양우 추진위원장, 박국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업추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살기 좋은 농촌개발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행복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이정복기자

공주시,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수료

귀농·귀촌 전문화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설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4주간 총 60시간에 걸쳐 운영했던 '2020년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공주시의 귀농`귀촌 정책 및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한 이론과 현장견학 등 맞춤형 교육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농촌체험과 치유농업, 스마트팜 등 특성화 농업교육 과정을 신설해 전문화된 귀농`귀촌 인력을 육성, 농촌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홍숙 농촌진흥과장은 "앞으로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성화 농업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정착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특성화 교육과정을 추가로 증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충남대학교, 4단계 BK21사업 '본격화'

23개 교육연구단(팀)+대학원 혁신, 1차년도 69억 6,800여만원 지원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가 석 · 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4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을 본격화한다.

충남대는 지난 11월 10일 오후 5시 30분, 영탑홀에서 '충남대학교 4단계 BK21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진숙 총장과 BK21사업을 수행해 나갈 23개 교육연구단(팀)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4단계 BK21사업에 선정된 23개 교육연구단(팀)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충남대는 4단계 BK21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향후 7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1차년도에 23개 교육연구단(팀)에 45억 5,100여만 원, 대학원혁신에 24억

1,700여만 원이 지원되는 등 1차년도에 총 69억 6,800여만 원이 지원된다.

4단계 BK21에 선정된 교육연구단(팀) 소속 대학원생들은 석사과정은 월 70만 원, 박사과정은 월130만원, 박사 후 과정 연구원 등 신진 연구 인력은 월 300만 원 이상 등 안정적인 교육 ·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 5개 이상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게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 대학에도 선정돼 ▲대학원 국제 경쟁력 강화 ▲연구 환경 · 질 개선 ▲대학원생 복지 개선 등 대학원 제도 개혁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진숙 총장은 "BK21사업을 수행하는 23개 교육연구단(팀)이 대학원 혁신사업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4단계 BK21사업을 통해 충남대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도시공사 임직원 어려운 이웃 위한 자발적 기부 대전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필품을 모아 복지단체에 기부했다. 도시공사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난 2주 동안 진행한 기부물품 모집행사에는 200여명의 직원이 동참해 식품류와 생활용품 등 모두 2,800여점(250만원상당)의 생필품을 모았다.

공주시 중학동, 다문화가족 칠보공예 체험 공주시 중학동(동장 김기남)은 지난 11일 중학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과 '행복한 가족,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강좌 및 칠보공예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이 평소 희망했던 프로그램으로, 불과 유약, 금속의 3가지 공정과정을 거치는 칠보 공예를 통해 브로치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직접 제작했다.

대전세종중기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4개 업체 인증서 수여 대전 · 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재연)은 12일 ㈜파셉, ㈜큐라움, ㈜유니스소프트, ㈜엔지니어스톡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신규인증을 획득한 4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이어 규제로 인한 경영애로파악 및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가졌다.

예산문화원, 제17 · 18대 원장 이 · 취임식

제17대 김시운 원장 이임, 제18대 김종옥 원장 취임

예산문화원은 제17 · 18대 문화원장 이 · 취임식을 지난 11일 예산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제17대 김시운 원장의 이임과 제18대 김종옥 원장의 취임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선봉 예산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이승구 예산군의회의장, 원성수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충청남도 내 문화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 취임식에서는 지난 12년간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예산군 문화발전과 예산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제15~17대 김시운 이임원장에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선봉 예산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등의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전달했고, 제18대 김종옥 원장이 새로 취임을 통해 예산문화원의 활성화를 다짐했다.

제18대 김종옥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65년 출범이래 예산군민의 문화 수준 향상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예산문화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문화원 회원 모두와 함께 예산군민 모두가 문화혜택을 크게 누려 높아진 문화수준을 실감할 수 있게 하고, 예산군 역사자료 정립을 통한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향토문화 발굴과 전승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김성구기자

학원 관련 종사자 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 범죄전력 전수조사

대전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대전 관내 학원장, 강사, 교습소장, 개인과외교습자 총18,48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 아동학대 범죄전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학원 · 교습소 운영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 ·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채용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범죄전력이 확인된 취업자와 취업예정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도 · 점검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채용 전 성범죄 조회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종사자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말까지 연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안내하였다.

김정환기자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충남도지사상 수상

2020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기구 우수사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관장 배정수)는 충청남도에서 주최하고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2020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기구 우수사례' 부문 충청남도지사상과 청소년 수기부문(위원장 천순범) 충청남도의회 의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빛솔'은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항) 및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해가는 청소년참여기구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기구이다.

올해 활동은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 있었으나 대면회의를 대체한 화상회의, 신규위원들을 위한 '빛솔 가이드' 영상제작 및 아산시청소년정책제안발표대회(희망테이블) 기획 및 진행, 연말에 진행할 정책제안을 위한 아산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펼쳤다.

천순범(아산고 2학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도 못하고 화상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힘들었긴 했지만 열심히 따라준 위원들과 시간을 쪼개서 활동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前위원 형, 누나들에게 감사하다"며 "2021년에도 더 열심히 활동하는 '빛솔'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상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시상식 없이 상장과 부상을 기관으로 배송 받을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시설公, 공동특허 출원으로 혁신성장 선도한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과 ㈜은성씨앤알(대표 최상균)은 12일 공단 중회의실에서 지역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여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수준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으며, 공단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을 지역 산업체와 공유함으로써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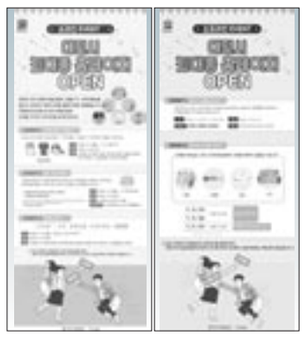
양 기관은 협약체결을 통해 사이클경기장 용 충격흡수안전펜스에 대한 공동특허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단은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에, ㈜은성씨앤알은 공동특허 신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전국 사이클경기장 및 유사 체육시설(11개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토대로 체육시설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공동특허를 취득한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로 지역 산업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효율적 경영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시 '대전의 깃대종을 찾아라' 언택트 행사 개최

14일부터 연말까지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



대전시는 '대전의 깃대종을 찾아라' 기념행사를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 깃대종을 찾아라' 행사는 대전의 깃대종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대전시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야외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대전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야생생물인 깃대종을 홍보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자연생태에 대한 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온라인 시민참여 행사는 개설된 웹페이지에서 깃대종 소개를 받고 전문가가 알려주는 깃대종 교육영상을 시청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에 깃대종 홍보물을 게시하고 인증샷을 찍거나 깃대종 지키기 인증을 하면 귀여운 깃대종 캐릭터를 받을 수 있다.

깃대종 홈페이지 주소는 '대전깃대종.kr'이며 대전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은 모두 3종으로 산에는 하늘다람쥐가, 계곡에는 이끼도롱뇽이, 그리고 하천에는 감돌고기가 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갑천 엑스포 다리 밑, 장동 산림욕장 입구 등에서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포토존 이벤트로 깃대종과 사진 찍고 문자보내기 등으로 사람간의 접촉 없이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임북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의 깃대종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생태환경 보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대전의 자연생태적 미래가치를 높이는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당진시, 세이브더칠드런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 완공

마음껏 뛰어놀자! 당진초 놀이공간 '꿀단지' 개장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세이브더칠드런(국제구호개발 NGO)은 12일 당진초등학교 다목적실과 외부 놀이공간에서 어린이들에게 놀 권리 실현과 안정적인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 '꿀단지' 완공식을 가졌다.

이날 완공식에는 이건호 당진시 부시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당진초등학교 전교생 역시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해 함께 축하의 시간을 보냈다.

당진초 놀이공간 꿀단지는 지난 5월부터 총 3회에 걸친 아동참여 워크숍을 통해 장소 선정부터 놀이 요소, 공간 명칭까지 실제 이용자인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전교생 공모로 정해진 이름 '꿀단지', 재미가 꿀처럼 넘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꿀단지 완공은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잘 노는 우리 학교 만들기'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의 결과물로, 학습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공간을 놀이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 놀이 시간을 확보해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당진=최근수기자

aT "김장비용 하향 · 안정세 유지"

4인 가족 기준, 전주 대비 3.4% 하락한 29만 9천원선

김장철을 앞두고 올해 김장비용은 하향 ·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이병호)에 따르면,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재료 구입비용은 지난주 대비 3.4% 하락한 29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T가 지난 4일에 이어 11일에 김장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이다.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 · 무와 생강이 하락했고, 생육이 부진한 쪽파와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갓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주재료인 배추 · 무가 하락하고, 고춧가루 · 마늘 등 양념 채소류가 상승해 전체 김장비용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 '농할갑시다 김장편'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의 김장비용 절감을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농협 ·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친환경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약 3500여개 매장에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aT는 김장철을 맞아 aT페이스북(facebook.com/atcobook)을 통해 1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에 김치요리 경연대회 수상작인 '퓨전 김치요리 레시피'를 2개씩 소개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EN.F Total Interior Design 연.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8422-6946 주방가구 · 붙박이장

제20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수상작 선정 및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숲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표현한 예술작품을 일반부 5개 부문(사진, 시 · 수필, 목공예, 서각, 손수 저작물(UCC)), 청소년부 2개 부문(그림, 글쓰기)에 대하여 실시한 「제20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우송정보대학 "4차산업 및 CSR특강" 개최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11일 동캠퍼스테크노관 소강당에서 '2020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의 프로그램으로 4차산업 및 CSR(기업의 사회적책임)특강을 개최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 · 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새 보금자리 마련 대전 유성구(구청장정용래)는 12일 대한적십자사 대전 · 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회장 이순자, 이하 대한적십자 유성지구협의회)가 유성커뮤니티센터 3층에서 같은건물 1층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마스크 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권호, 이하 중진공)는 1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구선회)에 마스크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중진공 임직원, ㈜코어(대표이사 권오정) 및 익명을 요구한기업이 성금을 모아 재원을 마련했다.

충남대 생활과학대학-육군종합군수학교 병참교육단, 업무협약체결 충남대 생활과학대학과 육군종합군수학교 병참교육단은 11일 오후 4시 30분, 박길순 학장과 강기원 단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과학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생활과학대학-병참교육단 업무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공주시 사곡면지역사회봉사회, 취약계층에 난방유 · 연탄 전달 공주시 사곡면(면장 곽병수)은 지난 11일 사곡면 지역사회봉사회(회장 김충용)와 함께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난방유와 연탄을 전달했다.

공주시 옥룡동 – 일공공일 안경 · 콘택트 공주점

'사랑의 안경나눔' 및 업무협약 체결

공주시옥룡동행정복지센터와 일공공일 안경'콘택트 공주점(대표 정진우)은 12일 옥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복지팀 업무지원 협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사랑의 안경나눔 행사로 65세 이상 어르신 380명에게 본인의 시력에 맞는 돋보기안경(60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창원 옥룡동장과 일공공일 안경'콘택트 공주점 정진우 대표, 이상표 시의원, 옥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원숙 위원장, 공주시노인회 옥룡동지회 이훈휘 회장 및 관계자 등 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사랑의 안전나눔 협약은 옥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원숙 위원장이 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의 일환으로 일공공일 안경'콘택트 공주점에 옥룡동행정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을 건의해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옥룡동에 거주하는 사례관리대상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무료로 안경제작 및 지원을 지속해 지역주민의 눈 건강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원숙 위원장은 "옥룡동은 다른 동에 비해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연한 기회에 일공공일 안경'콘택트 공주점 정진우 대표를 알게 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안경 나눔을 실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일공공일 안경'콘택트 공주점 정진우 대표는 "부족하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눈 건강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돋보기안경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겠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옥룡동장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고 사랑의 체감온도도 낮아 걱정이었는데 사랑의 안경 나눔 행사 소식에 무척 기뻤다"며 "앞으로도 복지자원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문용원 순천향대 사무처장 전국대학교 협의회장 선출

지난 11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0 전국대학교 사무 · 총무 · 관리 · 재무처(국)장협의회 추계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이날 오후 정기총회에서 차기 협의회 회장으로 문용원 순천향대 사무처장(사진)이 선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회장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최종 선출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협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임기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이다.

문용원 신임 회장은 "국내 대학들이 언택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시 동문1동새마을협의회

서산 이마트 후원 김장 나눔 행사

서산시 동문1동새마을협의회(지도자협의회장 이성학, 부녀회장협의회장 김정희, 이하 '협의회')는 12일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

협의회는 매년 서산 이마트(점장 현용주)의 후원으로 직접 김장을 담가 동문1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원들이 대거 모여 김장을 담그는 행사를 열 수 없어 이마트 측에서 김치 완제품 150여 박스를 전달받아, 새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 했다.

동문1동새마을협의회는 이마트와 함께 하는 김장 행사 외에 한화토탈과 함께 하는 김장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남서울대, ㈜쓰리에스테크와 업무협약 체결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는 10일 ㈜쓰리에스테크(대표 손영진)와 남서울대 제1회의실에서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서울대 윤승용 총장과㈜쓰리에스테크 손영진 대표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됐다.

한전원자력연료, 사회적기업에 '안전 패키지 서비스' 지원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상봉)는 지난 11일 대전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한울타리에 '안전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날 한전원자력연료 안전관리실 직원들은한울타리에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기부했다.

평택 · 당진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 협약 체결

금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경기도-충청남도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과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인),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11월 12일 경기도 평택항 마린센터(9층 중회의실)에서 평택 · 당진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4개 기관은 평택 · 당진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 항만지역의 대기질 정보 및 분석결과 공유, 환경친화적 선박 · 하역장비 보급, 항만 출입 노후 경유 자동차 출입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환경부-해수부 간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및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지역의 관련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항만은 선박과 대형 경유 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있어(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 차지)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충청남도는 두 차례의 실무회의('20. 10. 12., '20. 11.6) 및 의견조율을 통하여 평택 · 당진항만지역에 대한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및 원인물질 농도를 측정,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지원을 하게 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 경유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고 항만 지역에 친환경 하역장비를 보급하며 선박 연료 중 황 함유량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항만 인근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운영하게 되며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우선 저공해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이번 협약이 평택 · 당진항만 지역주민의 맑은 공기와 숨 쉴 권리 확보에 큰 기여를 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서로위로챌린지' 캠페인 전 직원 동참

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전국민이 함께 하는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인 #서로위로챌린지 캠페인에 전직원이 함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로위로챌린지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인 마스크, '서로'를 위해 내리지 말고 다시 '위로'올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LX가 주최하는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이다.

참여방법은 ▲'서로'를 위해 마스크를 '위로' 올려 쓴다 ▲코까지 올려 쓴 마스크를 손가락으로 꾹-눌러 제대로 착용한 후 손 하트 인증샷을 찍는다 ▲#서로위로챌린지 #참여지역명-두가지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 @소환해 본인의 SNS 피드에 업로드 한다(단,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한정)

김건태 본부장은 "이 캠페인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 역경을 해쳐나갔으면 한다"며 "챌린지는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하며, LX가 지역별로 참여 현황을 매주 취합해 코로나 극복 '함께해낼지도'를 만들어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인 사

■한국조폐공사

◇상임이사임용

▲부사장겸 기획이사류진열

▲사업이사강병욱

▲총무이사김영석

◇소속기관장임용

▲제지본부장채종천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기 고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김지숙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장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라는 글귀를 마주한다. 이 글귀에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이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기에 보훈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잇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하지만 세월이 점차 흐름에 따라 과거를 선명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전청에서는 최근 제적등록기록철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모두 돌아가시거나, 더이상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유족이 없어 권리가 소멸된 자력(등록기록철)들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함이다.

제적등록기록철은 1950~60년대에 등록된 것들이 대부분인지라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종이가 상해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다. 퀘퀘한 먼지를 털어내며 한 장 한 장 살펴보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6·25 전쟁터로 나가 팔다리를 잃으신 전상군경, 나라는 지켰지만 가족들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했던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을 전쟁터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아내 사진,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린이 사진, 아들을 둘이나 전쟁터에서 잃은 어머니의 사진 등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들을 먼저 보내야했던 유가족들의 가슴 저린 이야기를 안고있다.

제적등록기록철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한 장 한 장씩 꺼내볼 때마다 과거에 영원히 묻혀있었을지도 모를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자칫 보훈의 의미는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보훈'은 과거의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료와 기록을 남겨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되새겨 현재, 나아가 미래세대가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갖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전지방보훈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제적등록기록철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헌신, 유가족의 아픔을 모두 제대로 기록하고자 한다. 유공자의 사망은 끝이 아니라 이어나가야 할 우리의 이야기이기에 그 기록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남겨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실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칼 럼

벧엘의집 겨울준비

원 용 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울안공동체, 쪽방상담소, 희망진료센터)

엊그제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다. 아직은 다행히 날씨가 겨울이라기보다는 늦가을 정취를 흠씬 풍기고 있지만 일부 내륙지방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고, 한파주의보도 발효되는 날도 있는 등 겨울을 향해 한 걸음씩 가는 것 같다.

겨울이 되면 몸도 마음도 움츠려들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견뎌내기 쉽지 않은 계절이다.(요즘은 겨울보다 혹서기가 더 힘들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벧엘의집은 겨울이 시작되면 겨울나기 준비로 분주하다. 벧엘의집이 세들어 있는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창문마다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니 비닐을 쳐 찬바람을 막고, 1층과 2층에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연탄을 쌓을 곳을 마련하고, 각 사무실에는 그동안 창고에 보관해 놓았던 석유난로 등 난방기기들을 꺼내 나눠주고, 울안공동체와 쪽방주민들을 위한 1년치 김장을 담그는 것으로 월동준비를 마무리한다.

옛말에 겨우내 쓸 땔감과 김장, 그리고 식량이 있으면 겨울나기 준비가 끝난다는 말처럼 벧엘의집도 난방과 김장이 대단히 중요한 겨울나기 준비이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월동준비를 마쳤는데 문제는 김장이다. 올해는 김장배추와 무 작황이 좋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김장 담그는 시기를 12월로 늦췄다.

거기에다 고춧가루 등 양념값이 예년보다 비싸 미리부터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게 생겨 녹녹치 않게 생겼다. 그래도 김장은 벧엘의집 겨울나기의 중요한 일이기에 밑돌 빼서 윗돌 막는다는 식으로 이리저리 짜 맞추어 김장 하는 날을 잡았다. 아직은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12월 날씨가 어떨지 몰라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함께 힘을 모아 잘 준비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벧엘의집 겨울준비만 놓고 본다면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도 그런대로 지나갈 수 있으련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일정들이 서로 엉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올해는 벧엘의집 이사장이 변경되는 해이고 코로나19로 아직 후원행사는 날짜도 잡지 못했다.

코로나19와 안팎의 사정으로 일정이 꼬이기 시작하면 가장 힘든 것이 일꾼들이다. 보통 김장의 경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1주일간 하는데 올해는 김장이 끝나자마자 쪽방주민 연탄나누기 행사가 잡혀있다. 거기에다 연말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진료소의 타이치 건강교실, 쪽방상담소의 치매예방학교, 보석 같은 남자들의 연말 공연을 위한 준비 등으로 분주하다. 상황이 이러니 무엇 하나 제대로 될까하는 염려도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어떻게든 서로 독려하며 협력하여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올해는 벧엘의집이 새로운 20년을 향해 출발하는 원년이 되자고 했는데 첫 해부터 매끄럽지 못하고 얽히고설켜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20년을 향한 첫 발을 디뎠으니 잘 가리라 믿는다. 비록 벧엘의집 겨울나기 준비가 녹녹치 않지만 처음 벧엘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풍성하고 넉넉하지 않은가? 함께 힘을 내 잘 준비하자. 그리고 이미 새로운 20년을 향해 출발한 벧엘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

사 설

역대 최악·최장 감소 중인 청년 일자리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9.5% 증가한 3조9천529억 원이다. 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고용장려금(1조2천18억 원), 디지털 일자리(4천676억 원), 취업지원(2천227억 원), 취업성공 패키지(1천836억 원) 순이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들 사업이 '지원 수준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으니,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인 사업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세금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사업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청년 일자리만 무섭게 감소하고 있다. 올 4월(-47만6천 명)을 시작으로 5월(-39만2천 명), 6월(-35만2천 명), 7월(-27만7천 명), 8월(-27만4천 명), 9월(-39만2천 명)까지 지난 6개월간 청년 일자리는 역대 최대·최장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일자리 질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기준 '상용직 취업자'가 25만5천 명,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자'가 31만 명이나 감소했다. 취업자로 계산되나 실제 일하지 않은 '일시휴직자'도 41만9천 명 증가했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고용 대기' 중인 경우도 사상 최대다. '그냥 쉰 청년들'이 15만 명 증가했다. 물론 청년층 구직 기간은 다른 연령에 비해 긴 편이다. 초봉뿐만 아니라 직업 안정성과 평판, 임금 상승률 등 생애 전반에 영향을 줄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구직 기간이 늘더라도 더 나은 직장을 탐색하는 것이 생애소득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과 졸업유예 비율 등 구직 기간은 과도할 정도로 긴 게 사실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가 결합하며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돈이나 쏟아붓는다고 개선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즉 경제 자유도를 제고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해 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당정청 모두 거꾸로만 가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에 가득한 정치를 과감하게 지워야 한다.

코로나백신 개발 희소식에 높아진 기대감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효과 90% 이상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 백신이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을 지 속단은 금물이지만 최근 가장 근접한 성과란 점에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이번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 세계 보건의 료계 주요 인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미국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고무적인 뉴스라고 말하고 있어 상당히 진전된 결과물이 나왔음을 짐작케 한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화이자가 6개국 4만3천538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했는데 백신 접종군에서 환자 발병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백신의 효과가 검증된다면 이는 예방 효과가 93%인 홍역 백신만큼 강력하고, 일반 독감 백신보다는 무려 2배 가까이 효과가 있다고 비교 설명하고 있다. 화이자 측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며 예방 효과는 백신 투여 7일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해 백신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간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각국의 노력이 이어졌고 몇몇 국가에서 3상 임상시험 중, 혹은 임상시험 중단 등 희비가 엇갈리는 보도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적은 없었다. 이번 백신도 아직까지 중간 결과일 뿐 여러 면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방역당국이나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일단 다른 나라의 접종 결과를 지켜보고 부작용 등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내 접종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백신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수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국제기구나 제약회사 등 다방면으로 확보 전략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화이자 백신으로 전 국민에게 접종 차례가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28건의 임상시험이 승인을 받아 치료제 19건, 백신 2건을 임상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백신 개발을 위한 시설과 기술력은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그나마 희망적이지만 개발 상황은 더딘 편이다. 우리 기술력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해야 전 국민에게 안정적인 접종이 가능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오늘부터 겨울 정기세일 개막

오는 29일까지 겨울 정기세일, 인기 아우터 특집 등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 진행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대표이사 김은수)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최대 50%~1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이번 겨울 정기세일에는 코치, 겐조, 로레나안토니아찌, 올일릴리, 투미, 캘러웨이, 아르마니 언더웨어, 압소바, 산드로옴므, 혼마, 듀퐁 슈즈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세일 기간 중 층별 행사장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금강/랜드로바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고 사만사타바사 핸드백 제품을 15일까지 50% 할인 판매 한다. 3층 행사장에서는 모조에스핀 이월 상품전이 15일까지 진행되고 MLB키즈 겨울 점퍼 특가전과 무냐무냐 키즈 이너웨어 특집전도 19일까지 함께 펼쳐진다. 6층에서는 에스티듀퐁의 셔츠/타이를 2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으며 9층 가전 매장에서는 프리미엄 음향가전 브랜드인 뱅앤올룹슨 진열 상품전이 19일까지 진행된다.

2층과 6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리미엄 패딩 팝업 브랜드도 이번 겨울 세일을 맞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2층에 위치한 무스너클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100/200/300/400/500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각 금액별로 10%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증정하고 6층의 파라점퍼스와 노비스 매장에서는 19일까지 100/200/300만원 이상 구매 시 각 10/20/30만원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발리, 타임, 마인, 시스템 등 패션 그룹 한섬의 20여 개 브랜드에서는 15일까지 기존 5%에 5%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더블 마일리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세일 기간(13~29일) 중 당일 단일 매장에서 갤러리아카드나 제휴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과 갤러리아앱 쿠폰을 3층 사은행사장에 제시하면 5천 G캐시를 적립 받을 수 있고 8층 스포츠/아웃도어 단일 매장에서 갤러리아카드로 3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5천원 G캐시나 갤러리아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하 1층 네스프레소 매장에서도 22일까지 20/40/6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5%에 해당하는 G캐시 적립 이벤트가 진행된다.

송병배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창립33주년 기념 성금 100만원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 노철민 위원장(왼쪽)이 12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태희 회장(오른쪽)에게 노동조합 창립33주년을 기념해 이웃돕기 성금 1백만을 기탁하고 있다.

공주시, 2020년 순환자원 전자거래 활성화 경진대회 '우수상'

순환자원정보시스템 이용 및 홍보실적 우수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환경부에서 폐기물 등의 맞춤형 정보처리장치로 지정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의 사용률 제고 및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도 순환자원 전자거래 활성화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의 순환자원 정보센터 홍보실적 및 관할지역 내 폐기물관련 사업장과 지자체의 시스템 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주시는 전국 기초자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순환자원정보시스템의 높은 이용실적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실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병학 자원순환과장은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소중한 자원이 가치 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유통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요망.

大田투데이 DT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 회장 김성구 |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 **2020년도 국회 소식**

"국회 평균연령 55세…젊은 세대가 들어서 시대교체 선언해야"

박용진 의원, 연세대 강연서 정치권 변화 강조… 과감한 세대교체 넘어 시대교체 얘기해야

박용진 의원이 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과감한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 사진)은 <리더십워크숍>을 수강하는 연세대학교 학부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해당 강연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6일 사전녹화로 진행됐고, 오늘(12일) 낮 업로드될 예정이다. <리더십워크숍>은 3학점 교양수업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강연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의 미래,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바꿔야 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정치권이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시대교체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올드하다"면서 "55세가 넘는 평균연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더욱 과감하게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선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주의의 원칙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이다. 입법, 사법, 행정 3개의 권력이 각각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춘다"면서 "그중 유일하게 입법 권력인 정치만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를 올드한 세대가 이끌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기득권 위주로, 혹은 기존질서에 유리하게 많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바꿨을 때 적용받는 시간이 더 많은 청년세대가 정치권에 들어와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도 공정경제3법이 논의 중인데, 기업 옥죄기라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에서 180년 전에 만들어진 반독점법, 셔먼법을 보면 안다. 독점을 없애고 경쟁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얼마전 미 하원이 페이스북 · 아마존 · 애플 · 구글 4개 회사의 CEO를 불러 청문회에서 반독점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권고했다"면서 "그리고 더욱 강력한 새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바로 이 셔먼법을 만든 존 셔먼, 이 법을 과감하게 적용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었다"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서 미래 젊은이들이 더욱 많은 적극적인 창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숙제이자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국민연금 ▲인구문제 ▲기후에너지 ▲노동개혁을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연금 · 인구 · 기후에너지 · 노동개혁 문제가 하루아침에 나온게 아닌데 여전히 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가 이러한 장기적 과제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고 책임 있게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시대에 따른 가석방 제도의 기준을 말하며 정리 리더들의 자질을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 때는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에게 가석방 가점을 줬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가석방 기준이 기술 자격증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정치 리더들이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리더십 자질을 설명했다.

이어서 박용진 의원은 정치인이 ▲기득권 질서로부터의 자유로움과 ▲자기의 생각과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꼽았다. 박용진 의원은 "기득권에 속해있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서야 기존질서와 기존 로비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면서 "젊은 사람들, 70년대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 의논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질서, 혁신의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부단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처음에 바꾸자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욕먹는다. 기본 질서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한다' 고 욕하게 되어있다"면서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을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파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과감한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외로운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또 지도자의 결단의 예로 ▲조지 워싱턴의 제이조약 ▲넬슨 만델라의 백인정부와 타협을 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의 리더, 공동체의 리더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맞다"면서 백선엽 장군의 조문을 갔던 경험을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한 과가 있더라도 한국 전쟁에서 그가 세운 공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약산 김원봉도 나중에 북한 정권에 참여했었던 과가 있더라도 항일독립운동에서 그렇게 빛나는 역할을 했던 공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과거가 발목을 잡거나 과거 문제로 서로 다투는일은 가능한 한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정치인은 내로남불 하지 말고 역지사지해야 한다"면서 "민주사회에서 개혁은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외롭고 힘들고 욕을 먹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또박또박 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앞서나가겠다"면서 "누가 여러분 가까이 있고, 통합과 설득의 길 그리고 문제해결과 개혁의 길로 가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의 강연은 연세대학교 사이버 강의 사이트인 YSCEC을 통해 <리더십워크숍> 과목 수강생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연 전체의 내용은 오는 19일 박용진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박용진TV>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김성구기자

포럼 '자치와 균형' 자치분권 · 균형발전 위한 입법 나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10법, 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 등 균형발전 2법 국회 통과 목표

지방자치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46명 등 87명이 소속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 ·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법률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의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 행정안전위원회)은 "군사독재정권에서 폐지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포럼 자치와균형 상임대표), 서삼석 의원(포럼 자치와균형 공동대표), 송재호 의원, 이성만 의원, 양기대 의원, 이해식 의원, 서영석 의원, 이성만의원, 양경숙 의원, 김영배 의원과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내부 회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자치분권 10법 + 균형발전 2법>'을 발표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형 개헌의 대안적 의미가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주민권한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 발안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경찰권한 분산과 지역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법(경찰법 · 경찰공무원법)」 등 10법을 자치분권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을 균형발전 2법으로 선정했다.

포럼 상임대표인 김철민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21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며, "포럼 자치와균형이 중앙과 지방, 민간을 잇는 가교가 되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자치와 균형」은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으로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6월 4일 출범했다. 포럼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 ▲중앙-지방정부-시민 협력 거버넌스 강화 ▲국회-당-자치단체 중심의 협치형 포럼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임대표에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공동대표에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괭성규(인천 남동구갑), 염태영(수원시장)이 맡고 있다.

이규민 의원, 가축분뇨 자원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1일, 국회에서 「그린뉴딜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및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규민 의원과 국립한경대학교(총장 임태희), 안성축산농협(조합장 정광진)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발전사업부문에서는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부문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됐다.

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노웅래 의원, 표준을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협력방안 모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 사진)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 · 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 및 전문가와 함께 R&D와 표준 연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 · 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현되고있으나 그에 대한 표준 개발과 활용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성과 활용까지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올해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표준을 국가 R&D 대표성과로 인정하는「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인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하위법령 등에도 표준에 대한 성과관리 사항이 포함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선도경제를 위한 R&D 혁신과 표준화」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석철 충북대 교수는「자율주행차 R&D와 표준 연계 사례」를 공유하고, 이상훈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표준 R&D의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표준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추진체계, 표준성과 관리기관지정,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제표준화 전략을 필두로 다양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다." 고 언급하고, "국가 R&D와 표준연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여의도연구원,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 2020-13호 발간

총 3편의 보고서 실려

여의도연구원(원장 지상욱)은 12일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제언, ▶임대차2법發 전월세대란: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등 총 3편의 보고서가 실렸다.

제1편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평가, 미국의 대외 · 대한반도 정책 변화에 따른 당 차원의 대응방향에 대해 다뤘다. 선거인단 279명을 확보(11/9 기준)한 민주당 바이든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되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미동맹 및 북핵협상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대미외교전략 대응TF> 구상, 美 조야와의 협력 강화 등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제2편에서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상향'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11.3(火), 정부는 공시지가 90%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안대로 시행할 경우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전세→월세 전환에 따른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이 예상, 국민부담과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공시가격 결정시 국회동의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제3편에서는 정부의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강행에 따른 전월세 대란 실태를 점검,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지난 7월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국 주요도시 전세매물이 급감하며 저소득 · 빈곤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수요억제형 규제강화, 편가르기식 과세 등 현 정부의 포퓰리즘식 부동산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김성구기자